

김영록 전남도지사, 경제위기·연료비 상승... 긴급 민생대책 발표

에너지 취약계층·대중교통·농어업 전기와 유류 등 414억 지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와 경기침체, 전기세·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예비비 등 414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종합지원대책과 7월 물가 민생안정 긴급대책, 12월 경제위기·가뭄 긴급대책에 이어 4번째다.

난방비 분야는 기존 독거노인과 한부모 난방비 지원에 추가해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중 취약계층에 가구당 20만 원씩 70억 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분야는 노선 휴업, 감회 운행 등으로 도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추가해 유류비 증가분의 30%인 93억 원,

연안여객선에 전국 최초로 유류비 증가분의 25%인 1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직불금 분야는 컨테이너 운임이 2019년 1월에 비해 2022년 말 148% 폭등한 것을 감안, 수출액 2만 달러당 100만 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 분야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해 2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의 50%인 87억 원을 지원하고, 기름값 및 난방비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했던 것을 2월까지 2개월 연장해 138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전남이 전국을 선



도하는 지원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국가보조 논란과 관련, “수도권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지하철도 없는 지방의

농어촌 대중교통은 적자가 심각해 폐지 노선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하다”며 “농어촌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용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안기자

환경부,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민·관·학이 모여 습지정책 이행 논의

환경부는 2023년 '세계 습지의 날(2.2.)'을 기념하고, 습지 보전·관리 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이틀간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민·관·학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에 지정했으며, 2021년 8월에 유엔 지정 국제기념일이 됐다.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It'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으로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습지 복원의 첫걸음을 강조한다.

습지는 지구 표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세계 생물종의 약 40%가 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며 식량안보, 재해예방, 기후조절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람사르협약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고,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종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해 습지의 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습지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단체 등 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소개하고, 민간단체, 지자체는 그간 지역사회에서의 습지 보전·관리, 현명한 이용 노력을 공유한다. 또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의 국내 습지 복원 사례 및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4명의 습지 전문가의 발제 및 참석자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2월 17일에는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돌리네 습지는 수량 유지가 어려운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산지습지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2017년에 환경부가 23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관·학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습지 보전·복원을 위한 실천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경북도, 구미 인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정주여건 완비한 신도시 조성

경북도는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일원 150,305㎡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完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를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쳤으며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

정하고 구미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 주도형 택지공급사업이 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최적 배후도시로 떠오르는 구미시 산동읍 일원에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5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3,4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구미인덕지구도시개발구역 조감도



- 봉암도전석탑
- 고추말리기
- 반딧불이천문대
- 은행나무
- 서서지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영양군의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14명 위촉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15일 정책자문을 통한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14명의 의정자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2023년 주요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정책자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등 8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2년간 건설교통관련 주요 현안과 의

정활동에 대해 정책 자문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훌륭한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의회, 의원의 정책활동 입체적 지원체제 주목

전문위원실과 정책담당의 정책지원관 역할분담으로 입체적 지원 가동

경남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보다 밀착된 정책활동 지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함과 아울러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투트랙 체제로 입체적인 정책활동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나 지역구 현안 해결 등에 대한 검토와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하는데, 이 경우 주로 경남도정이나 지역적 현안의 동향에 초점을 둔 의원 요청에 대응하는 밀착 지원에 전념하게 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중앙정부 정책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발 빠르게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와 지역화 방안의 정책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의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감시와 함께 정책담당이 제공하는 대내외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안도 활발히 제시해서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정책활동 지원과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의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의 정책지원관 운영체제"라고 강조했다.

정책담당이 제공하는 정책정보가 의원들의 정책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신속한 정부정책 정보 제공과 연계해 5분 자유발언(박남용 의원, 1월 회기)을 했고, 대정부 건의(3월 회기)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책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시 대형 재난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용식 의원, 3월 회기)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등 적시적 정책·입법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정책담당은 지방발전을 위한 전국적 현안이나 의회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는 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

건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독립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손상락 정책담당은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입법활동과 5분 자유발언·대정부 건의안 등 다양한 정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치와 자부심 내지 만족감의 희열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정책동향을 포착하는 감각과 역량을 심분 발휘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전국 의회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체제에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장재현/기자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위, 스마트팜과 지방정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스마트팜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태안군을 방문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이원간척지 스마트팜과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방문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를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했다.

첫 방문지인 태안 스마트팜은 2021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79억 5000만 원을 투입, 유리온실 2ha를 신축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난방비 절감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주체인 원북면농농조합법인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시설지구, 숲치유지구 등 21.7ha 규모로 조성 중인 지방정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정원은 2021년 설계 공모로 최종 계획안을 선정,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핵심사업



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로 우리 충남에 스마트팜 단지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개원될 지방정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경제

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수산물 판매 등 지역의 농어업인과도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공부하는 위원회상 정립!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제337회 본회의 종료 후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연구로 2023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 △ 각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분석 △ 경북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에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감소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원격 수업은 불행하게도 학습결손의 증가를 불러왔다."며 "이렇게 발생한 결손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습성취 수준에 대한 격차 해소에 고심하다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는 다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적합한 기초학력지원

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제안했고 ① 교육감 산하 조직안, ② 직속 기관형 설치안, ③ 전문기관 위탁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윤승오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새해 출발의 시점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 11명의 교육위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꾸준한 정책연구와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완주군의회, 완주군 중소기업 상생발전 간담회 가져

완주군의회가 지난 14일 완주군에 위치한 (주)제이앤씨테크에서 완주군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완주군 중소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김재천 의원의 건의로 유희태 군수와 실시한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완주군은 전북최대규모의 산업단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중 약 80%가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으로 기술과 운영적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과 지식의 부족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정책지원 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

황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부 회원들의 재능 기부가 완주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주군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정부의 지원금 확보 방안,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각종 장비 운용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함께 성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주도한 김재천 의원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은 완주군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라며,

"오늘 간담회가 지역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 나서 주신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부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명장협회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완주군의회에서 적극적인 자체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 이후 명장협회에서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정부의 지원금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선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만들기 위해 1조9,013억원 투입

엄마아빠 양육 부담 줄이기 위하여 보육 3대 분야 중점 사업 추진

#생후 12개월 영아 3명을 모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선생님 배정이 어려웠는데, '서울형 0세 전담반'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등 지원을 받게 돼 다음 달부터는 영아 2명당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맞춤이 중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 줄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어 기대됩니다. -강서구 ***어린이집 원장

#서둘러 퇴근하고 저녁 7시 반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도 저녁 준비를 하면 8시가 넘어요. 그동안 배가 고프게 저녁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종종 인스턴트를 줄 때도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저녁을 준비해 준다니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 것 같아 좋아요. -마포구 거주 5세 아동 어머니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영유아 가정,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 3대 분야를 선정하고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총 1조9,013억 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하여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든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실행 원년인 올해 신규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오세훈표 대표 보육브랜드는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한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0세 전담반, 어린이집 식식지원 등 신규사업 5개를 발굴하고, '2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보육중장기 마스터플랜(2025)'의 기존 사업 중 양육자와 보육현장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모아어린이집,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충충한 공보육 지원', '보육서비스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3대 분야에서 모아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0세 전담반 운영 등 중점 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서울시는 '충충한 공보육 지원'을 위하여 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② '서울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③ '서울형 주말어린이

집'을 신설한다.

오세훈표 신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보육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60개 공동체(24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상호 조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함께 올해는 장애어린이집과 다문화어린이집이 참여한 어린이집 공동체를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 또한, 생태친화·다함께·놀이중심 프로그램 등 양질의 공동프로그램이 개발돼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1개를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6.4%에서 43%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신축)하거나,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관리동 등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어린이집 재원아동 167만 명 중 82만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보육의 공공성 및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1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보육 브랜드인 '서울형 어린이집'의 신규 공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21년 6개소→'22년 78개소→'23년 104개소), 올해 총 600개소 15,600여 명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조성한다.

6월부터는 토요일·일요일 보육에 특화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 10개소를 신규 운영해 주말에 일하는 가정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야간,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4개소 추가 지정, 올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 또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해서 가정에서 가까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과 '365 열린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두번째로 서울시는 '보육서비스질 강화'를 위하여 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②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③ '서울형 어린이집 전임교사'를 지원한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서울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올해 어린이집 24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총 4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 이하)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임으로써 교사가 아동 한명 한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업무 스트레스도 주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올해 3월부터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별도 전용 보육실에서 법정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반으로, 올해 100개 반(70개 어린이집)에서 시작한다.

'서울형 0세 전담반'은 교사 1인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한편, 0세 보육관련 교육과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업무를 경감하고 교감이 중요한 영유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감소 등으로 돌전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아빠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올해 104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300개소를 지원하고, 약 7,800명의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어린이집마다 전임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해서 담임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여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야간연장, 장애아·다문화·영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어린이집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전임교사의 인건비 기준상향, 자격기준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정기준과 지원요건을 개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영유아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① '서울아이발

달지원센터 개소', ② '영유아 어린이집 석식' 지원 ③ '전문가 양육코칭'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스페이스살림 2층)를 개소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시설이다.

서울아이발달센터에서는 전문 검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발달 지연 아동을 선별해 지원한다. 검사결과 발달 지연 진단 및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개별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모-아동간 애착 놀이 교육, 발달 지연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이른 저녁(저녁 7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석식 지원 어린이집'을 100개소 선정,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석식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 저녁식사 조리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질의 석식을 제

공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석식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석식을 원하는 아동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석식 제공시간을 이른 저녁(저녁 6시대)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초보 엄마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가 맞춤형 코칭하는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초보 양육자의 양육 고민을 식습관, 놀이, 훈육 등 10개 내외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강강을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화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는 1:1 양육 코칭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의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고, 또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영상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 가정과 보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3대 분야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엄마, 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서울 중구 "한양도성 견고, 인증 도장 꼭!"

서울 중구가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관광안내 지도를 새로 제작하여 3월부터 배포한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의 두위를 둘러싼 성곽과 문을 말한다. 수도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으로 전체 길이가 약 18.6km에 이른다.

한양도성 둘레를 따라 걷는 순성길은 4개 코스로 구분되며, 그중 3코스인 남산구간은 중구에, 1코스(백악구간), 2코스(낙산구간), 4코스(인왕구간)는 종로에 자리하고 있다.

도성을 따라 걸다 보면 산자락 따라 펼쳐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식힐 수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를 인기를 끌고 있다. 3코스 남산구간을 다녀간 탐방객의 수가 2021년 87명에서 2022년 422명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묶였던 발이 한양도성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올해도 한양도성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안내지도 국문판 27,000부, 영문판 500부를 새로 제작했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지도는 서울 곳곳의 관광안내소, 송례문 관리소, 한양도성 박물관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 등 모두 8개의 성문이 있다.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를 동서남북 사대문의 이름에 담았다.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지도에는 사대문을 지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 인증할 수 있도록 흥

인지문, 돈의문, 송례문, 숙정문 자리에 빈칸을 만들어 두었다.

사대문 스탬프 4개를 모두 찍으면 완주 기념 배지를 '득템'할 수 있다. 스탬프를 모두 찍고, 지정주소 4곳에서 인증사진까지 찍으면 '서울시 공공예약'에서 한양도성 완주 인증서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에는 해설사와 함께 한양도성을 걸으며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문을 연다. 성곽길이 품고 있는 옛이야기가 해설로 곁들여지면 걷

강성원/기자



금천구, 도시농업체험장 생태텃밭 분양

금천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구민과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생태 텃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구민들이 도시에서 손수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양천 금천한내교 일대(독산동 719-5 좌안)와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천 금천한내교 일대 조성된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은 신청 기간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가구당 1구획(7㎡)씩 총 300구획을 분양한다.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60구획)과 장애인(20구획)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따로 모집한다.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된 광명 도시농업체험장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 복지시설, 봉사단체 등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1기관당 1~2구획씩 총 50구획을 분양한다. 올해부터는 체험장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단체가 신청하고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달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구획당 연 3만 원이다.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퇴비·계절별 모종 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체험장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1958.1.1.이전 출생) 어르신 또는 장애인(장애인인증서



소지자)는 홈페이지 예약뿐만 아니라 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3월 7일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당첨자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서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금 미납, 주소·자격요류 등 선정 무효 사유 발생 시에는 전체 모집 규모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된 대기자의 추첨순서로 참여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천구는 텃밭 분양 외에도 구민을 대상으로 광명시 하안동 322에 캠핑 체험용 공유텃밭을 운영한다. 평상 1개당 최대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이 1개씩 배정되며,

요금은 5천 원이다. 신청 기간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천 도시농업체험장은 4월 1일 개장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텃밭을 분양받은 개인과 단체 대상으로 △ 사전 영농 교육 △ 퇴비·모종 제작 △ 텃밭 뽐내기 행사 및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을 개장 전 가을작물의 병해충을 미리 방지하고, 지역·배수력 증진 및 토양중성화 등 작물 생육에 알맞은 토양을 조성하는 토양개량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6월 말까지 작물 수확 및 밭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심 속 도시농업체험장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우상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만나 "인생에 단 한번 뿐인 기회 (파리올림픽)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은메달 딛 뒤 귀국 첫 일정으로 용인특례시장실 방문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처음 출전한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스마일 절퍼' 우상혁 선수가 14일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만났다.

우상혁 선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뛰었던 유니폼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독일과 체코 등에서 훈련하던 우 선수는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24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시장과의 면담엔 우 선수 전담 지도자인 김도균 감독도 함께 했다.

우상혁 선수는 "시장님과 용인 시민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많이 생겼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힘이 났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신 시장님 덕분에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다.

우 선수는 "파리올림픽, 인생에 단

한 번 뿐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균 감독은 "용인특례시의 지원으로 국가대표팀 차출 기간 외에도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시장님과 시민들의 응원에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균 감독과 우상혁 선수는 급한 일정부터 소화한 후 용인의 중고등학교 육상 꿈나무들을 만날 계획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이름을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상혁 선수 특유의 낙관적인 태도가 돋보였다. 다른 도시에서 우상혁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육상 꿈나무들을 잘 지도해 주고 힘과 용이 시장은 "육상 꿈나무들에게는



우상혁 선수가 우상일 텐데, 학생들이 우 선수를 본받아 더 열심히 기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제2의, 제3의 우상혁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육상 꿈나무들을 잘 지도해 주고 힘과 용이 시장을 "육상 꿈나무들에게는

조혜영기자

안양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 확대...아동양육시설 등 대상 3곳 추가

최대호 안양시장 "모든 아이 건강하게...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정책 발굴·추진"

안양시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소,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3곳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은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관내 아동 보육시설에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관내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에 건강과일 간식이 제공됐으나, 올해 3곳이 추가됐다.

또 시는 일년에 46회 제공하던 것을 58회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관내 어린이 약 1만8천여명이 건강과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과일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등 19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고, 친환경인증, 경기G마크인증, GAP인

증을 받은 고품질 과일이다.

과일의 양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연령을 고려해 어린이집은 1인당 100g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린이 연령이 높은 시설은 150g, 공동생활가정은 200g 등으로 상이하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안양시청 위생정책과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직접 보육하는 가정에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육시설과 달리 연 1회로 일괄 건강과일이 제공된다. 오는 8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유용기자



평택시, 청렴 캠페인 및 서약을 통한 청렴 실천 다짐

평택시는 15일 시청 1층 로비에서 평택시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평택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청렴동아리 평술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담아 자체 제작한 청렴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 실천 서약식을 통해 '시민만족 청렴 도시 평택'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 실천 서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갑질 근절, 이해충돌 방지와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전 직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달성한 만큼 평택시 공직자가 공직의 최우선 가치인 청렴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올 한 해 부정부패 없는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위한 결속 다져

인천산단 CEO, 국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 참석

인천산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국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인천광역시 15일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 기원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윤관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배준영 의원(기획재정부위원장),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결의대회에 이어서는 ▲인천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발표 ▲양향자 국회의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과학기술 패권국가 -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침 특강을 진행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향한 인천의 열정과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공항·경제자유구역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와 반도체산업 성장 잠재력을 무기로 반드시 특화단지를 유치해, 인천을 반도체 후공정의 메카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초일류 반도체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천에는 옌코코리아와 스탠드칩코리아 등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을 비롯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등 1,30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산·학·연·관 업무협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대외홍보 등 특화단지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방침이다.

김종남기자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20년 이상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교체 및 세척 등 개량공사 지원

화성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및 세척 등 개량공사비이다.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 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무료이다.

총예산은 5억 7천8백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정을 우선 선



정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시승격 31주년 경제자유구역으로 '비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시승격 31주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도약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직인 월례조회'에서 "1992년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지난 31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필두로 한 대규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1996년 고양으로 이사를 때에 대부분 눈발이던 곳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더니 어느새 여럿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등 그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껴온 사람으로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도 밝혔다.

이어 "고양군이 고양시로, 또 고양특례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이뤄야 할 것이 많은 만큼, 공약사항과 함께 새로운 고양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3일 2023년 업무보고 마무리와 함께 민선8기 공약이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8대 분야, 70개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지금부터가 직원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때이기에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공약 추진 시에 산확보나 중앙부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을 맞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계획에 반영해 공약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민선8기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만큼,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백석동 업무빌딩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리적 위치와 여유로운 업무공간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곳"이라며 "무엇보다 주변 건물에 각각 흩어져있던 청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주고 업무효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절감

한영기기자

인천시 넘치는 이웃 사랑, 인천시민이 행복한 나눔

15일 봄바람처럼 따뜻한 나눔 소식이 인천시 '행복한 동행'에 전해졌다.

(※발렉스서비스에서 성금 500만원, 인천시 양곡가공협회에서 백미 2,250kg, 오비맥주 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온누리상품권 500만원, 동북목장에서 농협상품권 300만원을 기탁했다.)

(※발렉스서비스는 2010년 설립된 호텔, 시설관리, 보안 인력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이기도 하다. 발렉스서비스는 2019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에 이어, 이번에도 임직원 월급여의 천원 미만 끝돈 모으기를 통해 모아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오비맥주 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016년부터 인천시에 성금, 백미 등 꾸준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노동조합원들이 심심 일반 모은 성금으로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했다.

인천시 양곡가공협회는 인천시 소재 정미소 대표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쌀을 제공하고 2023년 설립한 협회로서, 설립을 기념하며 인천시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백미 2,250kg(900만원 상당)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동북목장은 인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인천시 대표낙농가로서, 동북목장 원우국 대표는 2020년 청정축산환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17년부터 꾸준히 행복한 동행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경희 인천시장은 "이전에 여러 기업·단체에서 훈훈한 나눔을 해주셔서 이미 인천시에 봄이 온 듯하다"며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열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염종현 의장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제도 재정비 앞장설 것!"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례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의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20.9.18)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20.10.12~22.6.30)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산업현장 점검·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경기도는 올해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되는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수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채용 규모는 31개 시·군별 2~6명으로 총 104명이다. 채용된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안내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산재예방을 위한 홍보 역할도 전담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운전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최종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주 5일제)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률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안을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데크 등 해빙기 주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시군 자체 상황관리반 운영과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안전관리는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빙기, 산불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 등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함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인력양성센터 등 핵심전략 발표 및 종합토론

안성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성의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과 전문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용선 의원, 반도체 기업인, 관내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의 반도체 육성전략 발표와 전문가 기조 강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은 전략발표를 통해 안성시의 중점목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실무인재 육성으로 선정하고, 안성시가 가진 지리적 강점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성시 반도체 산업의 추진전략



과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며, "안성시가 관내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기반으로 전문 인재 육성과 인프라 공유, 기업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안성이 추진하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지역과 대학,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반도체 도시로 안성이 지닌 강점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여건, ▶사통팔달의 도로망, 철도망 등 교통접근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 용이성 등이 제시됐다.

김보라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있다"라며,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인 소·부·장 산업과 인력양성,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안성"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제도 운영 공정성, 효율성 제고 목적, 2월 7일 공고분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고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한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적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 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유명호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국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



영기준 등 개정내용은 도교육청 온라인 설계공모 시스템 에듀플랜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도교육청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149건, 620억 원이었으며, 2023년 예정된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총 100여 건, 45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조혜영/기자

GH, 취약계층 위한 전세·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호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

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12개 시·군(가평·광주·구리·군포·수원·안산·안양·여주·오산·의정부·파주·광명)에 666호가 공급된다.

특히 가구별 다양한 거주 수요를 반영하여 1~2인 가구용(전용 50㎡ 이하) 257호, 3~4인 가구용(전용 50~85㎡ 이하) 404호, 4인 이상 가구용(전용 85㎡ 초과) 5호를 공급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입임대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도시공원, '제로파크(ZERO PARK)'로 편리하게!

복잡·불편·불필요 없앤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수원시 도시공원이 복잡하고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제로파크(ZERO-PARK)' 콘셉트를 목표로 한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해 도시공원 조성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잡함, 불편, 불필요를 없앤다는 의미의 '제로파크(ZERO-PARK)'는 수원시만의 도시공원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물 간의 통일성을 높여줄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원의 힐링·휴게 기능이 강화되도록 복잡함을 없애고, 누구나 공원을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불편도 없애며, 공원 경관과 조화롭도록 불필요한 요소도 제거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먼저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벤치 등 공공시설물과 종합안내사인 등 공공시각매체의 형태, 재료, 색채, 도면의 원칙을 규정했다. 간결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에 크기 등 옵션을 다변화한 표준디자인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색채는 팔달산을 의미하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화성행궁을 의미하는 금색을 강조색으로 선정했다.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방부목 등 내구성이 있으면서 외부 환경의 영향과 오염을 최소화해 유지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했다. 본고딕 서체와 산업자율부 기술표준원에 고시된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별 배치·설치 지침과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기성제품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역사문화공원 등 장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특화공원을 조성할 때

배리어프리(BF,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원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유니버설친환경·지속가능한(유지관리)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사업 기획부터 출입구, 화장실 등 시설의 시공까지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향상하고 실용성이 있는 지침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돼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겨울방학 SW·AI교육 새싹캠프'마쳐

오산시는 아이들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체험 및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디지털 새싹캠프가 참가 아동들의 큰 호응 아래 일정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함께자람센터 17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초등학교 학생 총 347명을 참여한 이번 캠프는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새싹 캠프 선정 기업인 (주)에프엔제이(SW, IT교육콘텐츠개발전문에듀테크기업 대표 정재업)의 지원으로 교육비는 무료로 열렸다.

캠프는 9~10일까지 함께자람센터 8개소 아동 172명, 13~14일은 9개소 175명으로 2회로 나눠 열렸으며, 프로그램은 SW·AI 신기술 이해 등 이론과 실습 속 신기술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게임패드, 로봇팔을 이용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설계, 인공지능 음악대 악기연주, 합주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아동은 "이번 체험 활동에서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블록에 연결해 움직이는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4차산업, 진로탐색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SW·AI교육은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다. 아이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돌봄 교육프로그램으로, 새싹 캠프 선정 기업인 (주)에프엔제이(SW, IT교육콘텐츠개발전문에듀테크기업 대표 정재업)의 지원으로 교육비는 무료로 열렸다."

한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 대상 우선순위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으로 센터별로 정원이 상이하므로, 다니고자 하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시현/기자

광명도시공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광명시의 저소득 시민 주거생활 안정 정책에 부응하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철거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우선공급을 완료했고, 발생한 잔여세대를 근회 일반공급을 통해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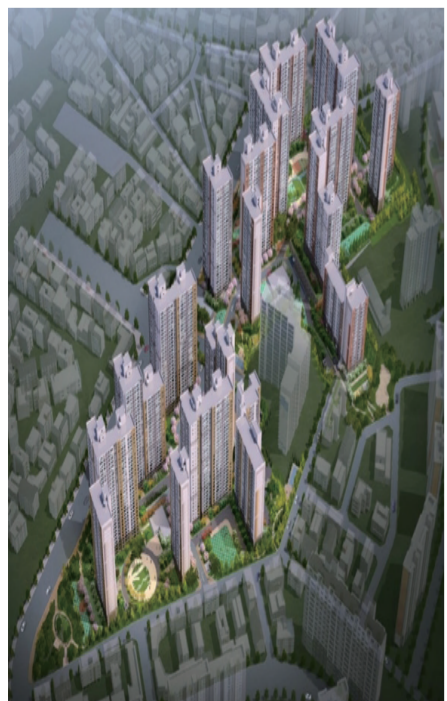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21세대(전용면적 32㎡)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운영예정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시장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한 광명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접수 전 2월 27일 임대주택을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특별·우선공급에 이어 이번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16구역) 일반공급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약일정 등 세부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민/기자



"갯골축제, 시민이 직접 기획한다" 시흥시, 2023년 제1회 정책제안 공모전 열어

시흥시는 시흥갯골축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하는 '제18회 시흥갯골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민참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중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을 운영하는 시흥시는 올해 첫 공모전 주제로 '시흥갯골축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흥갯골축제의 정체성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풍성한 축제를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대한 제안으로 ▲시흥갯골축제의 정체성을 반영한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시흥갯골축제 체험 관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전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한 시민 행복증진, 건강증진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차별화를 통해 축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접수받는다.

공모 분야는 즐길거리(프로그램, 이벤트 등), 먹거리(음식, 간식, 특산물 등), 살거리(마켓, 기념품, 특산물판매 등), 볼거리(전시, 온라인 콘텐츠(영상, 음원 등), 생각거리(시민 행복증진, 인구감소, 환경 캠페인 등) 등이다.

공모전 응모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시흥갯골축제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시흥시청 누리집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을 10개 선정해 총 10명(팀)을 입선하고, 각 10만원씩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심사결과는 3월 말 시흥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에게 친숙한 '시흥갯골축제'를 제1회 공모전 주제로 선정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의 제안 공모전을 열 계획이므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시흥갯골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2023.2.13.(월) ~ 3.3.(금)
공모분야: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생각거리
신청기간: 2023.2.13.(월) ~ 3.3.(금)
신청방법: 온라인(누리집) / 오프라인(시청)
문의처: 시흥시청 기획과 031-310-3003

김경일 파주시장, '철도혁명 시대'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파주시 철도의 미래, 서울 통근시간 30분대 실현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오늘(15일), 경의중앙선 금릉역에서 교통이 편리한 파주시를 위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계획,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이어, 네 번째 현장브리핑이다.

김경일 시장은, 3호선 연장선 출발역인 금릉역에서 철도망 비전을 제시한 만큼, 3호선 파주연장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민자격성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을 총동원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공항·부천·시흥·안산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남북 고속철도 연결로 '평화도시 파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KTX-SRT 문산 연결 사업,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반영된 통일로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며, 철도망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까지 20분으로 수도권 생활권 시대를 열어가길 GTX-A 파주~삼성 노선의 2024년 개통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전환

등 대중교통 노선의 전면적 개편으로 GTX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경기도 최초 수



요양담합버스 운행, 전국 최초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등 변화의 중심이 되어 성과를 이뤄왔다"며, "파주시의 철도혁명을 반드시 실현해 시민의 일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발로 뛰는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현안 해결 위해 광폭행보

"역시 재선 국회의원 출신 시장은 다르네요.", "집권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출신 답습니다."

시장 당선 이후 시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새해 들어 수석대교 위치 조정 및 광역 교통문제와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중이다.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주요 기관을 잇따라 찾으며, 현안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정부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추진한 현안문제 해결 요청이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신도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하남시-LH간 협의체 구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주목된다.

■대광위 위원장에게 시급한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재차 요청 이현재 시장은 이달 7일 신도시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미사·위례·감일신도시 교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이성해 위원장에게 건넸던 신도시 교통현안에 대해 재차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시급한 교통대책 ▲수석대교건설계획 재검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현실성 있는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하남유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하남시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전하며 "중북투자 방안을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에 이성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 1차관 면담, 국토부-하남시-LH간 협의체 구성 약속 '성과' 이어 이달 8일에는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 등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레저·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돼 많은 불편이 있다"며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이 차관은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담당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며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LH 사장 만나 신도시 일방적 추진 유감 표명, 자족기능 강화 촉구 이 시장은 또 지난 1월 13일 하남지역 4개 신도시 건설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LH 이한준 사장을 만나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4개 신도시 추진상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 지하철 9·3호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 LH 국토도시개발본부 신경철 상임이사, 신도시 기획처 최성진 본부장, 하남사업본부 정경호 본부장을 시장실에서 만나 하남시 현안문제 해결에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것이다.

■시민의 눈높이 맞춰 '1등급' 명품도시 조성 위해 최선 강조 이 시장은 신도시 현안 해결과 관련, 대외적인 광폭 행보와 별도로 시 공직자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13일 국·과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간회의'에서 신도시 주요 현안을 일일이 설명하고, 시의 방침과 추진목표를 공유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살고 싶은 하남시 건설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1등을 목표로 추진해 '명품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신도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 공직자 각자가 긴장감을 갖고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개최한 '2023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14개동 20여 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2월 15일부터 6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박강호/기자

영양군, 입암면사무소에서 제31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및 심폐소생술 등 시연

영양군은 15일 제31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입암면사무소에서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는 영양군청 및 입암면사무소 직원, 입암119안전센터, 입암면이장단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소화기사용법을 안내하고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민안전보험 확대시행 및 휴대용 소화기 보급 사업 등 2023년도 안전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어 관련 직원 및 이장단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평소 주민들이 지나쳐버리기 쉬운 생활 속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행사로 주민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재성 입암면장은 "매년 관내에

는 교통사고가 60여건, 화재가 20여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꾸준히 홍보하여 사고 없는 영양군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올해 방치된 빈집 80동 정비 추진

농촌·도심지 빈집정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이바지

안동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및 도심 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으로 생긴 빈집의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미관 개선과 더불어 유해 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에 총 1억 6,250만 원을 투입해 80동 이상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주택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슬레이트 지붕 250만 원,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중도포기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촌 및 도심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방정부 안전강력 추진

14일 세종시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전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전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지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5년 3,668개에서 2015년 5,206개, 2023년 1월 현재 5,842개(정원 25만5천여명)이며, 공공기관도 2012년 286개에서 2022년 350개로 지속적인 증가로 높은 행정경로비용이 발생(약 20% 이상 추정)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원 중 행정비용이 30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 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 추진중이며, 특히 도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즉,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 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이유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3조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 제 등 지방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 및 확장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연계·통합 교육정책 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또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 설치·시행(1.1조원) △지방교육재정의 50%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3.6조원)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현행의 50%) 규정 및 조례 결정(1.6조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2.10) 결과, 관계부처·시·도 및 지방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 회장)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를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추진...예산 1천171억원 투입

영주에서 허리 펴고 사세요



영주시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 어르신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영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만9천848명으로 전체 인구 10만630명의 29%이다. 시는 어르신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도 11% 증액된 1천171억 원으로 편성해 증가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

둔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833억 원) 지급부터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 바뀌는 시책사업은 노인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이다. 기존 지류식이던 노인건강증진권을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바우처카드' 형태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월 5천 원에서 월 7천 원으로 증액됐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2만 3천 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 7천 080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관내 2천400여 명의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안부 확인(주회),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힘쓴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82억 원을 편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를 통해 2천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치열하고 고단한 삶으로 젊음을 불태워 경제대국 10위에 빛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인생 선배님들이신 어르신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일에 한치의 게으름도 없으시길"이라며 "충추한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전방위 지원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시책사업 등 37개 사업에 406억원 예산 투입

경주시가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원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7개 분야 사업에 4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초인 2018년 91억 원에 비해 315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재정 지원, 기업고충 해결 등으로 기업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one-stop 행정서비스 △기업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사업 확대 등이 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

고충 선제적 해결'에 주력한다. 기업지원과 전 직원이 31곳 기업인협의회와 1인 1협의회 전담제를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고충 해결반을 운영한다. 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해피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

산업단지과 개별공단 기반시설 확충에도 발 벗고 나선다.

시는 두류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산산단 저류조 정비, 천전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명계3산단 공업용수로 건설 등 18개 사업에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경주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체당 300~500만원의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과 지역 7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1000만원 인센티브와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골든기업 선정 육성사업도 실시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술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육성 기반구축 △기업체 근로자(기업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

진비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9개 지원 사업은 올해도 지속된다.

이밖에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업 지원 △기술닥터 119 지원 △자동차부품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3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경제의 주축인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산업도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주민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교육명품도시’ 걸맞은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 위해 4억4천7백만 원 투입



예천군은 4억4천7백만 원 예산을 들여 민선 8기 군정과제인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천군민아카데미, 예천군 평생학습관, 도민행복대학, 읍·면 행복학습센터, 예천군민대학 등 평생학습 역량과 학습 기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화 평생교육, 성인 문해교육 추진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평생교육 지도자를 양성해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역할

과 기반을 구축하고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하고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개최로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통해 학습자 간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예천군 여성회관을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지정하고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폭넓은 배움의 기회

를 제공한다.

경북도립대학교와 연계해 평생학습관을 계속 운영하는 등 주민의 교육 접근성 제고는 물론 학습기반 정비로 향후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 계층에 걸쳐 생애주기별 맞춤형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주민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교육명품도시에 걸맞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의성군은 2월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상업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작년 공모를 신청해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등 8개면 420개소(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43개소, 지열 19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안계면, 다인면, 단북면 306개소에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에

는 의성읍, 단촌면, 정곡면, 옥산면 425개소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군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전기요금, 난방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보급하여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봉화 봉성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찾아가는 집중신청기간’ 운영으로 불편 해소!

봉성면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기존 면사무소 접수창구 운영 시 신청 대기시간이 긴 번거로움 등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을 이장들의 협조 하에 각 마을회관에서 집중신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으로 대체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신청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농

업인들에 대해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를 동시에 신청 받아 3월 신청기간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했다.

김기동 봉성면장은 “방문 신청 시간 대기시간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며 농가제 상승과 유가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다음 달 자격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금자/기자



청송군 청소년들, 끼·재능 맘껏 뽐내~

2023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밴드 ‘코베루스’콘서트 개최

청송군은 지난 2월 14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소년동아리밴드 ‘코베루스’ 콘서트를 골자로한 ‘2023년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코베루스’는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은 관내 청소년 20명이 모여 만든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밴드이다.

이번 콘서트는 코베루스 멤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진행 및 마무리까지 직접 운영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코베루스 밴드 공연 외에도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K-POP 댄스 팀의 축하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등 함께 즐기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송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취약계층 민생 현장 찾아 소통 행보 이어가

김재욱 칠곡군수가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민생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왜관5리와 덕산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13일까지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듣고,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딪힌 주민을 위한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김 군수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 현장을 직접 방문·체휼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서민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난방비 지원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소외된 분들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4107여 가구에 긴급난방비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칠곡군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 4억 1070만원을 편성해 2월 중 2회에 걸쳐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광삼/기자

대구시교육청, 2023 글로벌 탐구 미래삶 해외봉사활동

5박 7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에서 현지 학생들과 한국문화 체험 수업 및 노력 봉사 시간 가져

대구시교육청은 해외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사회 역량을 키우고자 대구지역 고등학교 1학년 우선배려학생 27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탐구 미래삶’봉사단이 지난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씨엠펀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우선배려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글로벌 기관을 탐방하는 ‘미래삶’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해외봉사활동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탐구 미래삶 해외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발대식과 그룹별 학생 멘토링 등 준비과정을 거쳐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웃음놀이, 비석치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전통놀이와 노래기 및 합숙선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국문화 교육 봉사, ▲밥퍼 봉사, 유치원생 돌봄 봉사, 마을환경개선 등 노력 봉사, ▲양국 또래 친구들이 한국전통놀이,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캄보디아 춤 공연 등을 함께 즐기는 한-캄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캄보디아 민속촌, 양코르와트, 톤네샵 호수 방문, 크레르 쿡킹 클래스 참여를 통해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글로벌 탐구 미래삶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의사결정능력과 글로벌 소통·협업능력을 키우고,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실천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참가 중인 김은서 학생은 캄보디아국립청소년센터에서 활동 후 “인사 단 두 마디만

할 수 있던 제가 몇 시간 만에 현지 사람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보람찼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캄보디아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웠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눔과 실천의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미래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마음 토닥토닥’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와 사회로의 조기 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개별 맞춤형 전문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해 빠른 치유를 통한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접수·검토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신청 사실을 ‘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에 통지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자문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와 상담 및 심리치료 담당기관 선정, 지원액 기준, 지원 기간 등에 대해 심의·결



정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뿐 아니라,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북교육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에 1,749억 원 투입!

대구시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라는 비전 아래 올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1,749억 원(국비 1,113, 시비 589, 기타 47)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출현과 함께 이(異)업종 융합을 통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미래모빌리티과와 UAM팀을 설치했으며, SKT·한화시스템과 함께 '대구 UAM 선도도시 조성 MOU'를 체결함과 아울러 '프랑스 발레오·미국 보그워너' 등 글로벌 부품 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 기업·대학·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 아래 속도감 있는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대구시는 광역 도시 유일하게 도심 내에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해 시범운영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 현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설화명곡역으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시범운영 구간을 서대구역 일대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KTX-자율주행-지하철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자율주행-대중교통 연계 시대'를 열어나간다. ▲ 이와 함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120억 원)을 통해 기(既)구축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일반 시내도로까지 확대하고 소형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전(全)차종 실증이 가능한 상용화 환경을 구축한다 ▲ 아울러,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주행시험 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4년 준공된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 시험로와 유럽 신차 평가기준(EURO NCAP) 통과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증설해 글로벌 수준의 CAV(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시험장으로 고도화한다(42억 원).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최근, 정부는 기존의 대일 수출정책을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에 초점을 맞춘 소부장 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인 전기차 혁신 모터밸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이 강점을 보유한 모터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연관기업 집적을 통해 모터 제조·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립첨단

산업, 국내 전기차 모터 코어의 70%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현대전기차 모터 모듈을 위탁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 모터 소부장품,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한, 대구는 경북·경남·울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벨트의 동남권 관문을 형성하고 있어 모터 특화 단지가 조성된다면 타 지역과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대동모빌리티의 대구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 E-배송모빌리티 협력생태계 육성사업'을 통해 초소형 EV 핵심부품을 생산화하고 지역 기반의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통해 '마이크로 EV 제조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UAM 융합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은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체·부품 제작, 환승센터(버티포트) 건설 등 인프라에서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다양한 미래 공간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국내·외 기업과 동시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도권권과 경쟁할 수 있는 내륙도시로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UAM 등 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사업(10억 원)'을 통해 선도기술 R&D 지원, 글로벌 포럼 운영 등과 아울러 금호강 하중도 노선 대상으로 UAM 비행 시연도 추진해 시민들의 수용성 확대에 앞장선다. 특히, UAM 상용화에 대비해 이착륙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은 1.96%로, 전국 평균 1.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전기차 7,947대(누계 34,198), 전기이륜차 3,335대(누계 11,453) 등 총 11,684(누계 46,58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늘어난 보급물량에 맞추어 시민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다.

이중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조와 서비스 융합 가속화로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분절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 K2 충전부지 개발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미래 50년 도시공간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앞으로 대구가 전국 최고 모빌리티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투자활성화 위해 시군과 소통하고 역량 결집!

김병규 경제부지사, "소통·협업 강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시군이 함께"



경상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8개 시군 투자유치 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했으며,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 계획, 경남투자청 설립, 인센티브 개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도와 시군 간 소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와 특화된 지역산업 등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 마련과 지역 출신 기업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

자 활동 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설립될 경남투자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개편안에 대한 시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유토론에서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다양하고 폭넓은 투자유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내 대내외적으로 투자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와 경남투자청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시군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 위

해서는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전략 발굴 등을 위해 시군 간의 소통과 협업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올해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 및 관광 분야의 투자 유치 계획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방산 등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잠재 투자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시민과 함께 유치하고 전세계가 함께 즐기는 박람회"를 부산으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대비, 각종 분위기 조성 행사와 축제를 촉매로 시 전역에 시민들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 부산의 매력을 실사단에 알릴 계획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에 대비해 역량을 총집결한다!

부산시는 오늘(14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구청장·군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람회 유치에 대한 부산시의 열망을 실사단에 잘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현지실사 추진상황 총괄 브리핑에 이어, 대시민 분위기 조성, 환경정비, 안전관리, 홍보, 교통, 관광수용태세 등 분야별 준비상황 보고, 토의 및 전문가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8기 부산시정은 시와 구·군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지난해 7월 2일, 시장-구청장·군수의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시·구·군 소통혁신실천선언'과 함께 '엑스포 유치지지 공동선언'을 할 바 있다. 이후 시와 구·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함께해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와 구·군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오늘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결정을 앞두고 유치를 결정지을 평가 기준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유치 열기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구·군과 함께 실사단 방문 시기를 전후한 '엑스포 주간(EXPO WEEK)'에 다양한 시민참여형 축제와 분위기 조성 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즐기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람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구·군 행사를 한 눈에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방영 조치, 부산의 야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사와 전략적 연계, 부산의 매력을 최대한 강조, 부산의 70년 발전사를 보여 주면서, 대한민국 부산이 전 세계와 협력하여 물, 먹고, 쉬고, 애너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현재 실사 준비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사단이 부산에 도착해서부터 며칠 때까지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감동할 수 있도록 부산이 가진 인프라, 문화, 자연환경 등을 잘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며, 아울러 "개최도시 의지와 시민들의 열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산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단이 직접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시고, 지금부터 실사 전까지 구·군 전역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열기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군의 협조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송중진/기자

포항시,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정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생태계 선도한다!

포항시, 산·학·뜻 모아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 개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과 함께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포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도내 이차전지 기업, 산·학·기관 대표 등 총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병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대표, 김권 포스코케미칼 설비투자실장, 이완형 해동엔지니어링 대표, 최도성 한동대 총장, 김형락 포항대 총장(직무대행), 장세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최영호 흥해공고 교장, 김봉갑 위덕대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에너지머티리얼스, 우전지앤에프,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6개 기업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t 생산 체계 구축 △이차전지 기업 간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구축 등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와 경북도는 이차

전지 기업이 경북대, 영남대, 포항공대, 금오공대, 한동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포항제철공고, 포항흥해공고 등과 함께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적극 나섰고, 포항시와 경북도는 교육혁신과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및 인재양성, 연계를 위한 포항시와 경북도, 포항시와 경북도는 교육혁신과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등 관련 이차전지 기업은 협약에 따라 양극재 생산량을 현재 25만톤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만t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양극재 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앞으로 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초격차 확보로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초격



▲ 포항시와 경북도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이차전지 기업, 산·학·기관 대표 등 총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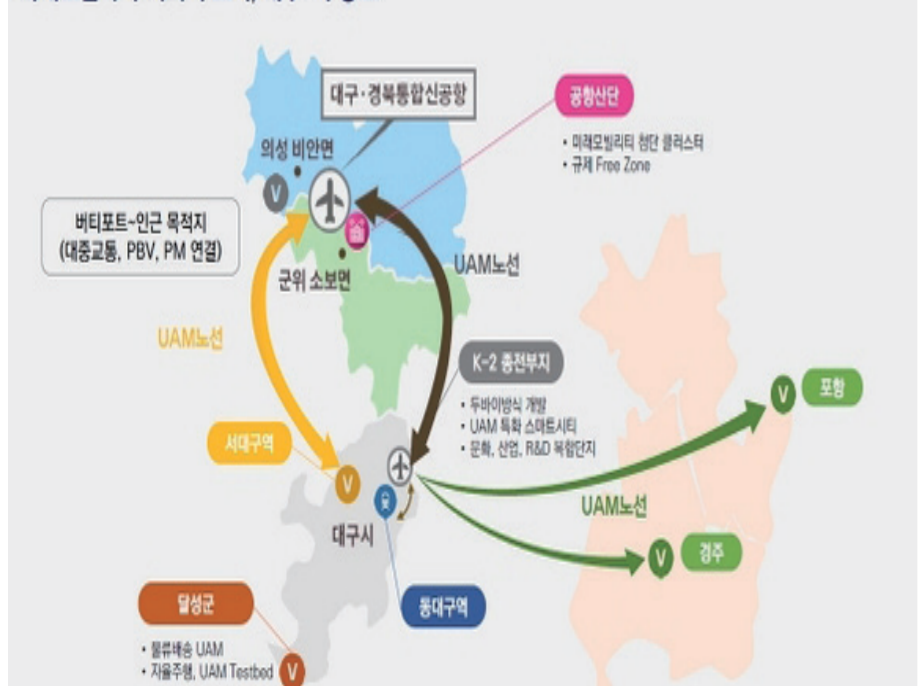
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항이 철강산업 도시를 뛰어넘어 미래산업 신성장 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교육기관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2월 27일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접수 마감 후 첨단전략산업 기술 영위 여부, 집적화 효과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세부평가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모빌리티 융합산업 육성(519억 원) 전국 최초 KTX-자율주행-지하철 연계, 모터 소부장 특화, UAM 산업 선도

"미래모빌리티 기회의 도시, 대구" 구상도



전국 지자체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전북에 문열어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한 민관융합 지역 정책 발굴 추진

전라북도도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청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구축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데이터안심구역 1호'로 지정됐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도 충족한다.

이날 행사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현판식과 함께 기관별 상호 협력 방

안도 논의했다.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지역 경제 정책 발굴 현황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전북도는 '23년도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활용사례·분석 실습 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금융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혁신 스타트업 지원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정책 발굴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및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회복지 서비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외취약계층과 동행하는 민관융합 사회서비스'를 설명했다.

'소외취약계층과 동행하는 민관융합 사회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분석하고 계층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추후 전라북도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협업 기관을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행정, 의료 등)을 활용해 전북지역에서 시민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도 검증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부의 데이터안심구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타기관 데이터안심구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합데

이터 생산 및 금융혁신 연계 빅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 국민·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안심구역 공식 지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 발대식 개최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 '힐링은 진안고원에서, 치유는 마을축제에서'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마을간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진안군마을축제 발대식이 16일 마이산에코타운에서 열렸다.

진안군마을축제는 마을 주민이 마을의 특색을 담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작고 소박한 농촌형 축제로 공동체적 관심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추진된다.

발대식에는 올해 마을 축제 참가 마을인 26개소 마을 주민을 비롯해 관련 5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마을축제 진행영상을 감상하며 다시금 지난 축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2023년 마을축제 기본 계획 설명, 참가마을 및 기관단체 선정보고도 진행됐다.

또한,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26개 마을위원장과 이장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고 올해의 축제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 올해 추진 될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최인석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마을축제는 그동안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기획·운영하며 마을 주민의 역량과 함께 발전해왔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3년간의 상황이었지만, 올해를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마을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마을축제는 마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시기에 연중으로 마을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정신질환자 회복 돕는 '첫마중' 문 열어

당사자 주도의 회복지원공간 운영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회복지원서비스 제공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전주지역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정신질환자 자립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마련된 회복지원공간인 '첫마중'(덕진구 백제대로 787, 2층)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첫마중'의 뜻깊은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회복지원공간은 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의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구축한 공간으로, 교육실과 부서 회의실, 상담실, 카페테리아, gs편의점 등 직업 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자립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취업 지원, 자립체험홈 운영, 동료지원가 상담



등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복지원사업은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로 독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회복지원공간 개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승일/기자

익산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가속'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

익산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폐철도 유휴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신재생자원센터, 호남고속도로 주변 등 4곳에 9ha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폐철도 유휴부지에 11ha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인 송학동에서 오산면까지 3.5km와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인 화동1가 1km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11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우선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문 앞, 1.5km)은 이미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협

약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송학교~오산초등학교 방향, 2km)의 경우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장항선 복선전철화로 발생한 폐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인화행복주택~평화육교 방향, 1km) 조성을 추가사업자로 정하고,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미 돌입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주관 부처인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교감함은 물론 특히, 공모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산림청 기후대응 기금 20억원을 확보하게 되고 여기에 시비 20억을 더해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도 녹색도시환경국장장은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미관 향상 등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휴식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남원시, '남원'하면 떠오르는 새 도시브랜드 개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 인식조사 공청회 개최

남원시는 올해 남원의 역동성과 매력, 정체성 및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담아 '남원'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슬로건(BI)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남원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 인식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브랜드의 중요성과 브랜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도시발전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의 상징물은 2000년에 개발한 하트모양의 심플마크()와 2013년에 개발한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랑', '춘향'으로 남원의 이미지를 한정 경

제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의미 전담의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남원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 웹포사를 통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2차 공청회를 개최해 1차 공청회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남원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부안마실축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축제 준비 집중

부안군과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추진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부안마실축제는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안의 대표축제이며 매창공원 일원에서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할머니의 품속으로'라는 주제로 추진위원들의 열띤 토의와 논의를 거쳐 부안의 지역문화, 관광자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실은 부안 여행축제라는 메시지를 담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마스&파파

스 뮤직 페스티벌, 지역민이 만드는 야간 퍼레이드,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등 8개의 테마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야간에는 교동천 및 매창공원 축제가 일대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꾸며 밤마실 나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눈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문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에서는 주제와 부안마실을 브랜드화하고 부안 관광자원 상품화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의지를 밝혔다.

김현태/기자

김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 설치 및 저녹스버너 '최대 90% 지원'

김제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 증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및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2023년 총사업비 7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김제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존 4·5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경관리를 단속보다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김현태/기자

진안군, 모든 군민에 1인당 3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원

진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15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최근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안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부대 비용을 포함해 총 7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3월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진안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즉시 지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

해 결혼이민자로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다.

군은 사용지역, 기간, 업종 설정이 가능해 소비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다. 사용은 온라인, 상품권구입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 및 진안로컬푸드직매장(전주시 호성동 소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완료해 군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구례군, 산수유꽃축제 4년 만에 개최

봄꽃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 총력



전남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축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4년 만에 개최하는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를 주제로 3월 11일 오후 6시 개막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근각지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과 안전 분야에 더 중점을 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공연, 체험, 판매 등 총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전 공연에서는 원초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성인들로 구성된 구례합창단이 산수유 로고송인 '구례의 산수유'를 부르고, 작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호남여성농악 공연도 펼쳐진다.

개막 공연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6에 올랐던 트로트가수 '장민호'와 트로트계 흑진주 '박해신',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이자 구례군 출신 가수 '김산옥'과 구례 대표가수 '이정옥'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 밖에도 지역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기획·공연하는 '우리동네 버스커' 공연, 전국 공모를 통해 선별한 버스킹팀 공연, 구례 출신 트로트가수 기획공연인 '렛츠디스크'와 국가 무형문화재 농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위한 '키즈데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산수유꽃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휴 쉼터

도 조성했다. 어린이 동반 가정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버블쇼 등 테마공연을 열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산수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체험인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가 있다. 관광객 참여 행사로 진행하며 순위를 매겨 수상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수유꽃길 걷기 프로그램은 총 3개 테마로 구성했다.

가족 단위 걷기 프로그램인 '산수유패밀리락',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 하자는 취지의 '산수유꽃길-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걷기 코스인 '러브애헤링로드' 프로그램이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챌린지 이벤트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주변 관광지 연계 이벤트도 추진한다.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화염사 홍매화, 구례300리 벚꽃, 섬진강 갖꽃 등 봄철 내내 우리 지역 꽃길을 걸으면서 구례의 봄 정취를 만끽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군은 산수유꽃 축제에 이어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서시천체육공원과 300리 벚꽃길에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구례를 봄꽃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장흥군, '안전이 일상' 재난 없는 지역 만들기 총력

장흥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군은 안전이 일상이 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명절과 휴가철, 겨울철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자 올해 바꾸쳐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분전함, 등주, 경광·경보등 등 506개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확충 및 관리한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상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장흥군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흥 관산장환마을서 새해 첫 마을좌담회

월파 방지시설 약속...무산 김 양식 활성화 등 도정 구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장흥 관산읍 장환마을회관에서 2023년 첫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를 열어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무산 김 양식산업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등 도정을 구상했다.

장환마을은 원래 섬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연륙 도로가 놓이고 1970년대 간척사업이 이뤄져 농촌과 어촌을 겸한 마을로 거듭났다.

육지와 섬마을의 매력을 모두 갖춘 고장으로, 마을 앞 득량만의 청정한 바다에서 사시사철 나오는 다양한 수산자원이 마을 주민의 주 수익원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주민 밀착형 현장 소통행정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장환마을에서 바닷가 마을 재해 방지를 위한 월파 방지시설 설치 예산 최우선 확보를 약속하고 무산 김 양식 현장을 살폈다.

좌담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박형대·윤명희 전남도의원, 임동일(62) 마을이장과 마을 주민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마을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임동일 이장과 마을 주민은 마을이 바다와 인접해 갖는 생활상 불편함이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특히 마을 지면이 만조 시 해수면과 차이가 없어 풍랑주의보가 발령되거나 태풍이 오면 높은 파도로 도로나 주거지가 수시로 침수되고 있으므로, 월파 방지를 위한 '파도막이 설치공사'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마을 주변 바닷가에 월파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좌담회에 이어 지난 1월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받은 장흥 무산 김 양식 현장과 가공업체 등을 둘러 현장을 청취했다.

이는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장흥 청정해역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도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김 양식 과정 중 염산을 쓰지 않는 '무산 김' 생산으로 유명한 장흥에서는 최근 김 양식어가 11곳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2ha 규모에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 인증

(ASC)을 받아 화제가 됐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에서 접점을 강화해 생생한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도지사 마을 현장 좌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점심·간식 소통'... 내부 결속 다지기 눈길

공직사회 상호 존중·공감 문화 솔선수범

윤병태 나주시장이 경직된 공직 분위기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매달 신규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가 하면 격주에 걸쳐 과업부서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간식을 나누는 등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인 결혼, 가족상 등 애경사 이후 복잡한 직원들과는 티(tea)타임을 통해 축하 또는 위로, 격려를 전하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더하고 있다.

보통 간부급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과 시장과의 점심, 간식 자리는 중무시무식 또는 매년 취임 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단순 연례행사로 여겨져 왔다.



반면 윤 시장은 취임 이후 매달 짝 들어온 일정 가운데서도 직원들과 소통 일정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직급과 관계없이 격의 없는 대화로 세대 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존중,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상급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시장은 올해 1월 19일자 신규 임용된 직원 4명과 최근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나눴다.

직원들로부터 공직 입문 소회부터 업무 스트레스 요인, 최근 관심사나 고민 등을 경청한 윤 시장은 공직 선배로서 경험담을 토대로 진솔한 조언을 전했다.

부서별 찾아가는 간식 소통은 지난해 연말 미래전략과 사무실 깜짝 방문을 시작으로 격주 이뤄지고 있다. 이후 축산과(12월), 올해 1월 교통행정과, 건설과를 방문했으며 2월 들어 지난 14일 교육지원과 사무실

을 찾았다.

윤 시장은 이 자리서 지난 해 평생학습분야 수상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이자 주요 시정 방침인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교육지원과는 기존 혁신도시교육과에서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전담부서로 개편됐다.

'교육정책', '평생교육', '대학협력', '나주시립도서관운영지원T/F', '빛가람시립도서관운영지원T/F' 등 5개 팀, 총 24명의 직원이 소속됐다. 장학 사무와 인재육성,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나주교육진흥재단 관리 부서이기도 하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 나주사랑상품권),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보관광 위해 속도내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의 도보관광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면서 도보관광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 주요 시설 등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1897 개항문화거리 도보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도보 여행 가이드는 총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목원동과 만호동 일원의 도시재생여행, 1897년 개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구 목포세관부터 목포항 등 경제거점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근대항구여행, 근대역사관 등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근대뮤지엄여행, 목포 배경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필름 속 목포 여행이다.

지도에는 1897 개항문화거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기호와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코스별 도보 소요시간 안내 등 목포를 처음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도보여행 가이드 북은 목포근대역사관1·2관,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 배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재원이 풍부한 만호동 일원을 돌아보는 도보 여행 가이드 제작으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순천시, '100원 마중택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인기

순천시가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100원 마중택시'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00원 마중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탑승권(카드형식)과 100원만 내면 자택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지역은 11개 읍면동, 64개 마을로 1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마을은 읍면동 내 마을 소재지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700m(동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선정 마을 거주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1인당 월 4회에서 5회로 늘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중택시 이용 횟수 확대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중택시는 최근 4년간 총 225,475회를 오지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특히 장날, 봄·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수/기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3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기태)는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경기, 경북, 세종, 전남, 제주)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강원권역은 강원혁신센터에서 담당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두 가지로 개인분야는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협업과

제 분야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본 사업은 기존사업과 지원조건에 변화를 준 것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되면서 7년 이내의 참가자격 요건이 삭제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예비창업가 트랙은 사업에서 제외됐고, 예비창업가 육성은 추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혁신센터는 본 사업의 강원권역 담당 기관으로, 이번 공모 선정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기존에 선발된 240여명의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영월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영월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승용 80대, 화물 57대)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40만원, 소형 화물차는 1대당 1,900만원이며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경형 화물차는 1대당 1,7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1대당 1,090만원을 차등에 상관없이 정액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승용택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물 차량의 경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

진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월군에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군민, 기업, 법인, 단체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차량 구매 계약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되고 10일 이내 출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군민행복을 위한 평창 발전 대토론회 개최

평창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나나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창 만들기'라는 주제로 '군민행복을 위한 평창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 정책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군민이 공감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보이지 않는 갈등, 이기주의, 불필요한 요소 등 긍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군민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고자 개최하게 됐다.

본 토론회에 앞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제한 '평창군 발전방안'에서는 타 시·군보다 경영자원과 경영활동은 높은 데에 반해, 경영 성과는 낮아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산된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도출했다.

또한, 고령화, 인구소멸, 지역 간 불균형, 기후변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평창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PLAY 평창(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평창), STAY 평창(일상이 즐거운 살맛나는 평창), OKAY 평창(나누고 실천하는 화합 평창)비전을 제안했다.

본 토론회는 2023년도 군정운영 방향 보고 및 평창군 발전방안 발제에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재국 평창군수가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번영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노인회, 체육회, 여성단체 협의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평창군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과감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필요성, 스포츠 마케팅 강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 김장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은 평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 하에 선택과 집중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군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군민이 하나되고 화합하는 평창을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로 뽑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꼼꼼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동해시, 1,000만 관광객 시대 준비 총력

올해 3월~4월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전시민 관광 요원 이벤트 추진

동해시가 시 개청일을 맞이하여 전시민 관광 요원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 개청 43주년을 맞이하여 동해시를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네트즌들이 이메일이나 SNS 매체를 통해 자발적 홍보)과 유튜브,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해시 관광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수도권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개최하여 SNS(트위터, 블로그 등) 온라인과 병행한 관광홍보 마케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 북방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등 동해시의 위상과 변화될 미래상을 포괄하는 종합 홍보영상물(총 5개국어)을 올해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망상, 추암, 무릉계곡, 묵호권역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강원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무릉별유천지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2명 추가로 배치하여 총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5명의 관광통역안내원을 운영하여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동해안 최고의 도심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한섬감성바닷길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감성이미지와 스토리를 입히는 '미술관길 해안산책로' 등의 2단계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5대 권역별 특화관광지에 관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가미하여 자연생태관광, 치유와 체험, 힐링 관광 등 차별화된 특화 관광지 개발

을 구체화 할 계획으로, 망상골프장과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건립, 등산로 추가 개설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산악, 해양, 도시를 아우르는 특화관광지 완성으로 전국 10대 관광도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동해시를 찾은 관광객은 총 549만 2,800명으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무릉계곡과 도재비골 스카이블리&해랑전망대가 선정되는 등 관광도시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심규인 시장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경쟁력을 확보해 임기내 1,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통해 주민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군, 전 세계 동계스포츠 선수들로 북적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평창군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루마니아 선수 및 감독 13명을 비롯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9개국 57명의 선수단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국제대회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태국과 우크라이나 선수단 35명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미국, 독일 등 12개국 50명, 1월에는 12개국 86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평창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

평창군은 2021년부터 2018평창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과 함께 외국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평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24시간 통역 센터를 운영하며, 비자 발급 지원과 훈련 시설 통합예약 등의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을 위해 입국한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해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훈련하며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준비한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은 "세계 동계종목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 경기시설에서 양질의 훈련을 받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평창'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심재국 평창군수는 "외국인 선수단이 평창에서 훈련받는 동안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시설을 더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경험해서 평창을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화천군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

화천군,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청소년 해외연수 다시 시행



화천군이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했다.

화천군은 지난달 30일, 화천지역 중학생 21명, 화천정보산업고교생 2명 등 어학연수 참가자 23명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로 보냈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 2~3일차에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빠르게 적응했고, 이들과 함께 현지 광고영상 등을 시청하며 발음과 표현법 등을 습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현지 홈스테이와 학교 수업에 참여해 영어수업을 이수했고, 현지학교의 목공, 패션 디자이너, 자동차 기술 등 직업군 수업에도 참가했다.

화천군은 지난 2004년부터 대도시에 비해 해외연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고교생들을 위해 어학연수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까지 모두 478명의 학생들이 캐나다, 미국, 필리핀 등에서 견문을 넓히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했다.

참여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학습동기를 강하게 부여받고,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있다.

화천군은 중·고교생 어학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화천군의 해외연수 사업은 항공비와 체제비, 교육비 등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대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연수 중인 중·고교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영어 인터뷰와 필기시험 등 영어능력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향후 예정된 초등학교 어학연수, 중·고교생 해외 배낭연수 역시 영어능력평가와 프리젠테이션 등 까다로운 선발과정이 예정돼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의 청소년들이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감각을 키워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국민고향 정선, 관광두레사업 모범 운영 지자체 자리매김

국민고향 정선군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 주민사업체를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에 전국 최다인 4곳의 으뜸두레를 배출하며 관광두레사업 모범 운영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선군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사업추진단에서 선정하는 "2023 으뜸두레"에 북평면 나전역 카페와 운기석9020협동조합이 으뜸두레에 정선청년몰드리밍협동조합과 (주)콘디가 예비 으뜸두레에 선정됐다.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들이 모여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을 생산·판매하는 관광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기획, 전문 컨설팅 등 전반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민고향 정선은 2019년부터 정선관광두레PD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정선 나전역 카페는 나전역(간이역)을 레트로 감성으로 리모델링 후 정선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곤드레, 사과, 자두 등을 사용한 메뉴를 선보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SNS에 큰 인기를 끌며 4년연속 으뜸두레에 선정됐다.

또한 운기석9020협동조합은 정선에서만 생산되는 천연광물질로 주얼리, 디퓨저, 수첩, 젤라틴등을 출시하는 등 로컬라이팅한 기념품 개발 분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몰드리밍협동조합은 전통과 젊

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청아랑"에서 만난 5명의 청년들이 지역이 유희공간인 정선레일바이크 출발지 구절리역에 있는 "여치카페"를 리모델링해 정선찰옥수수를 활용한 디저트 카페와 정선향기 가득한 체험컨텐츠 운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콘디는 정선역앞에서 정선곤드레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식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으뜸두레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주도 관광형 프리마켓인 "맹골장 레일마켓" 운영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레몬트리협동조합 또한 상품개발, 브랜드개발, 역량강화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선 엄마들이 숨은 재능을 찾아 공예품 제작을 도우며 경력단절여성들 간 교류를 돕는 동시에 일터를 제공하는 등 주민주도 관광모범이다.

김광진 정선 관광두레PD는 관광두레 5년차를 맞이하여 관광두레의 좋은 시스템이 관광두레로 선정된 기업체 뿐만아니라 로컬리턴한 콘텐츠로 관광두레를 하고 있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시스템이 접목이 되도록 정선군과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보은군, 민선8기 비전 선포식 열린다

오는 22일 보은문화예술회관... 보은군의 새로운 도약과 방향을 제시

보은군은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오는 22일 오후 2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해 진행한다

비전 선포식은 향후 민선 8기 보은군을 이끌어 가게 될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재형 군수가 직접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생애 주기별 정주 여건 개선 △도시 수준의 인프라 구축 △안전을 We(위)한 보은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등 4개 분야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고 보은의 미래를 반영한 발전방안에 대해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선 8기 새로운 도약과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을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군은 제시된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공직자와 군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 민선 8기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통해 보은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싹틔울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남도,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선도'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제1차 임시회의 개최

충남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는 15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로, 이번 위촉식과 함께 제3기 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역할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변경 △조례·행정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 등이다. 위원은 도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며,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3기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라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온양3동은 온양온천의 관문 역할을 할 것"

온양3동 열린 간담회 개최, 도심 주변 생활민원 해소 논의

온양3동 열린 간담회가 지난 14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홍성표·박효진 아산시의원과 온양3동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양3동은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모종지구와 셋들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5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가오는 3월 준공을 앞둔 아산1C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온양시외버스터미널과 함께 온양온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도로편의 시설 확대, 곡교천 화장실 개방, CCTV 설치, 미세먼지와 소음피해 방지대책, 공동주택 내 지하

전기 충전소 지상 이전, 건물목 그늘막 설치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프로그램 등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생활 자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지역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몽골 총리 만나 교류협력 방안 논의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도지사 주최 만찬 개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3일 방한한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를 만나 몽골과의 관광, 산업 등 교류협력 방안 모색과 주요 도정 현안을 설명했다

4박 5일간의 짧은 방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성될 충북의 레이크파크와 몽골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연결한 양 지역 간 관광 및 교류 활성화, 희토류 등 자원 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 모색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북북도와 몽골은 바다가 없으나 호수를 배경으



로 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밧데리, 반도체, 바이오 신약 등 한국의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과 한국의 약 8배에 달하는 면적과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임을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이에 대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는 몽골과 한국은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및 기업들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 방문 첫날에 충청북도 지사 및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어 뜻이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어용에르덴 총리는 대기업과 최첨단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충북의 발전상을 언급하며, 희소 금속 및 광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한편, 몽골 총리 방한에 한국을 방문한 몽골 기업인들(약 30명)은 오는 15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기업 등을 견학하여 충청북도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기업인들과 협력관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차세대배터리 외투기업, 충주시에 1,956억 대규모 투자

충부내륙신산업도시 충주가 차세대배터리 생산 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2023년에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15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SES AI KOREA(유) (이하 SES)와 1,956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치차오후 SES 대표, 김한수 SES 한국지사 대표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SES는 치차오후 대표가 2012년 MIT공과대학에서 시작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미국 보스턴에 본사,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메탈배터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들과 공동연구계약 체결 및 대규모 투자지원을 받고, 2022년 기업가치 약 4조 원을 인정받아 유

육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8,000㎡ 부지에 건축면적 4,958㎡ 규모의 연구 및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5년간 1,956억여 원을 투자해 79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치차오후 대표이사는 "투자규모 확충, 지역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구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차전지는 전동화, 친환경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미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충주가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주시도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천안시, 행안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진행

천안시는 지난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3재난관리평가' 관련 재난관리평가위원과 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대학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6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43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한다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지표 중 하나인 천안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과 재난발생시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기능, 역할과 더불어 재난사고 방지대책 등 천안시 재난관리 총괄

자의 의지와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삼아 재난사고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잠재적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고 중장기 재난안전 종합계획인 '재난안전마스터플랜'을 구축했다



현장 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방재성능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람 중심 침수 대

응 등 35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제천시 "특색있는, 숨겨진 맛집을 찾아라!"

제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제천맛집' 인증업소 모집에 나섰다

지난 2019년부터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시는 '제천맛집'을 선정해 운영했다. 제1기는 4개분야 31개 업소다

특히 제천맛집 인증 현판 제작·부착, 맛집 소재지 및 홍보물 제작·배포, 홈페이지 및 SNS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집들을 홍보하기 위해 애썼다

그 후속사업으로 5년만에 제천맛집 제2기 30개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특색있으나 숨겨졌던 맛집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이 지난 업소로, 사업주자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뒀을 경우야 신청이 가능하다.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 등을 제천시청 관광과(내도로 295, 4층)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격 업소에 한해 2차 전문가 방문평가와 암행평가를 실시해 6월말경 제천맛집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관광객들이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사진, 스토리가 포함된 소재지 등을 제작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개별·소규모 여행 추세 발맞춰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예산군이 소규모 여행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서비스인 '예산 관광택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의 완화와 본격적인 일상회복으로 관광객 방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 관광택시는 초행길이거나 운전이 서툰 여행자들에게 관광명소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등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예산군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가족, 친구, 연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실속 있는 여행이 가능

하다

관광택시는 관광안내소(041-339-8930) 사전 예약 후 6시간 코스, 10시간 코스 중 하나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충의사,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관광택시 이용요금은 6시간 코스 10만원, 10시간 코스 16만원으로 요금의 50%는 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50%의 요금과 관광지 입장료, 주차비, 초과요금 등 기타비용은 이용객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관광택시는 2020년 12월 운행 개시 이후 꾸준



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단위 또는 개인별 자유여행으로 관광 추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언택

트 관광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제11회 대한민국 실천대상 수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조성’ 정책 높은 평가 인정받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가 주최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실천대상’은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 조성을 실천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2012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래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출산, 보육 정책을 추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이날 경북도는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가족사랑 실천 우수인증기관 인증패도 함께 전달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수상을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내고향 ‘영천’ 연이은 고향사랑 고액 기부

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내고향 영천을 응원하는 제3·4회 고액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영천 신병문 치산이 고향인 서정원(☎대선 대표)은 지난 14일 영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구 동구에서 1989년부터 광고업체(☎대선 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서정원 대표는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2013년에는 영천 시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고,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에도 코로나19 지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 대표는 “공산폭포에서 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내 고향 영천은 언제든 돌아갈 곳으로 현재 신병문 치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고향 주소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5일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

업회사법인 새봄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호 대표가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창이 고향인 기부자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고향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두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고향을 생각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소중히 새겨 영천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담례품과 지역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영탁/기자

양천구, '공직기강 확립 유공' 서울시 유일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시행된 평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 선정

양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행정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내부통제 운영, 내부통제 활성화 2개 분야 10개 지표를 토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양천구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달성하며 국

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가상의 부패상황에 대비한 청렴신고 모의훈련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우수 감사기법 발굴 및 공유 활동에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특별감사’ 우수사례로 가점을 획득했다.

이기에 양천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전 직원의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 양천의 모든 공직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청렴한 양천’을 최우선의 가치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 매주 반찬봉사 화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위해 매주 반찬봉사 활동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농가레스토랑에서 후원한 반찬을 화요일은 이서면의 지역사랑봉사단, 수요일은 행복나눔봉사단이 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반찬을 직접 포장해 대상자에게 가가호호 전달, 봉사와 안부확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힘을 보태 세 단계와 맞춤형복지팀이 매주 요일을 정해 거동

이 불편한 홀몸노인, 중증장애가 있는 저소득 가구, 부자가구 등 월 평균 120여 가구를 찾고 있다.

구지미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장은 “밀반찬을 직접 포장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찬을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면 농가레스토랑 전북 혁신점은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반찬을 후원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단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김광수/기자

순창 출신 배우 임현식,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쾌척

‘드라마 허준’에서 “술을 서시오”와 “홍춘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순창 출신 인기탤런트 임현식 씨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이 아깝기도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임현식씨는 지난 14일 순창군청에 직접 방문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촬영에도 동참했다.

임현식씨는 순창군 순창을 남계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한지봉 세가족, 허준, 대장금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배우 임씨는 “고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고향인 순창은 지치고 고달플 때면 찾아가 쉬는 안식처로 순창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순창군의 발전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임현식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 동참으로 많은 출향인사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기부금 담례품으로 순창사랑상품권, 장내 미생물 검사키트, 별초대행 서비스 이용권과 함께 순창고추장, 두릅, 옥광밤 등 순창의 매력에 담긴 농특산품을 제공한다.

이선수/기자



강원도립대학교, '링크 스타 컨소시엄(LINC STAR CONSORTIUM)' 조리빵 경연대회 1등 수상

강원도립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대구 영진 전문대학교에서 진행된 ‘링크 스타 컨소시엄(LINC STAR CONSORTIUM)’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과 함께 진행된 조리빵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링크 스타 컨소시엄’은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별 전문대학 6개교가 실질적인 공유·협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됐으며, 이번 포럼에서 주문식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업협업센터 수직사업 활성화 방안, 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유사 ICC간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리, 제과제빵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공유·협업 성과 확산이라는



컨소시엄 결성 목적에 걸맞게 6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리빵 경연대회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립대학교 바리스타제과제빵

과(지도 최근표학과장) 최정웅(2학년), 이재교(1학년), 권우빈(1학년) 학생이 한팀으로 참가하여 지역특산물인 오징어 먹물을 활용한 빵 반죽을

하고 치즈, 소시지, 빵가루 및 명란을 응용한 조리빵을 만들었다. 한편 참기름을 넣어 고소한 치아바타를 만들고,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숙주, 피자치즈, 슈레드치즈, 양송이를 잘 배합하여 조리빵을 완성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1등의 영광을 수상하여 제과제빵 관련학과에서 전국 최고의 학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박병수 LINC 3.0 사업단장은 “‘링크 스타 컨소시엄’을 통해 시도된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과 공동교육프로그램은 LINC 3.0 사업 대학 간의 공유·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학 간 실질적인 공유·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목포의 딸’ 박나래,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추억 담긴 고향 전남 발전 위해 기부제 성공적 정착 바라”

남다른 흥과 끼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했다.

전라남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국민배우 김수미, 김항식 전 국무총리, 트롯여신 송가인 씨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박나래 씨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씨는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지낸 전남은 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라며 “추억이 담긴 고향 전남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나래 씨는 목포 출신으로 ‘나 혼자 산다’의 주진행자를 맡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각종 TV프로그램을 통해 ‘목포의 딸’을 자처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목포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제1회 섬의 날’ 행사 홍보 영상 출연 등 전남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 상품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갓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담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업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해명/기자

나주 송월동,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훈훈한 연탄 기부·배달

“저보다 더 춥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나주시 송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탄을 기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월동 지사협은 늦겨울 추위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배달된 연탄은 총 1000장으로 한 주민의 후원 손길로 마련됐다.

이 주민은 나주시에서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쿠폰’ 대상자로, 지원된 연탄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도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자

아내고 있다. 김연임 민간위원장 “나눔의 행복에는 가진 것에 비례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한 선행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귀남 송월동장은 “소중한 연탄을 기부해주신 주민과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한 배달 봉사에 나서준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속되는 한파 속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대전시, 지역우주산업 육성 엔진 점화!... 우주산업 혁신기반 강화

맞춤형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본격 추진... 총 20억 원 투입



대전시가 지역 우주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15일 4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해 12월 지정된 연구-인재개발 특화 우주산업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사업에는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우주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특허/인증, 연구개발 기획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이전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우주산업 기술/시장 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전의 우주산업 선도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우주산업 협의회 운영 ▲신사업 기획(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우주명사 특강, 시민체감형 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를 확대, 우주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신규특화사업 등을 발굴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한선희 전라사업추진실장은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은 지역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의 지를 담아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며, "지역우주기업이 자생력을 갖추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향후 구축될 우주산업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전이 우주경제 강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이달희 경북도경제부지사, 헴프 산업화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및 특구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15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안동시 지역구인 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도의원과 이상학 안동부시장,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중점 추진 중인 백신, 헴프, 바이오식품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받고 헴프 산업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 헴프실증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방문해 산업용 헴프를 원료로 한 원료의약품 추출-정제 실증현장을 둘러봤다.

또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헴프 재배 실증단지지를 찾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업용 헴프 재배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사업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12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을 통해 2024년 11월까지 특구 기간(총 4년 4개월)을 연장해 실증 연구고도화와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1~4차 24개 특구 가운데 우주

“ 산업용 헴프재배 2건, 원료의약품제조·수출 1건, 산업용 헴프관리 1건 ”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재배 허용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재배' 허용 재배한 HEMP입 또는 미수정 암꽃을 폐기대상에서 제외 허용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입' 등 폐기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헴프에서 추출한 CBD 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제조·판매·수출 허용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마약류 제조'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소지·운반·보관·관리 행위 허용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마약류 취급허가'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

특구(총 4개 선정)에 선정돼 올해부터는 2년간 추가 국비 지원을 받아 보다 원활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2월 현재 헴프특구지역은 안동시 등 8개 지역, 약 42만㎡ 면적으로 34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헴프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사업은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3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의약품부터 합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글로벌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헴프 실증현장을 둘러보며 "지난해 식약처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경북도에서 향후 산업화를 착실히 준비해 농업기반의 헴프 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 & 홍대' 오픈



▲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영 중인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의 전경.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와 지역의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로컬 투어' 컨셉을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서울 성수·홍대·연남 일대에 '갤럭시 S23 시리즈'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는 12일까지 삼성전자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갤럭시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시에 지역 문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투어' 컨셉을 도입했다.

초고화질 카메라, 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갤럭시 스튜디오는 소비자들이 카메라, 게임, 커넥티비티 등 갤럭시 S23 시리즈의 다양한 매력을 합하게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미국적인 내온사인 조명과 컬러레이저 등으로 연출된 공간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초고화질 카메라와 나이트그래피 기능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원신, 뉴스테이트 모바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 생동감 넘치는 고사양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고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방문객들이 새벽, 낮, 해질녘의 세 가지 무드로 감각적인 셀피를 촬영할 수 있는 포토 공간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앵글의 사진을 콜라주 형식으로 편집하거나 프리즘 조명에서 이색적인 셀피도 촬영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갤럭시의 지속가능 철학을 공유하는 '포터 플래닛(for the Planet)' 스튜디오, 갤럭시 기기 간 연결을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유명 아티스트,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체험

한편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는 유명 아티스트,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보다 이색적인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

관람객들은 갤럭시 S23 울트라를 광고, 초광각, 망원렌즈를 모티프로 탄생한 정성운 작가의 작품 '이클립스(Eclipse)',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최정화 작가의 '코스모스(Cosmos)' 등을 감상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초고화질 카메라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페 '팅 성수 스페이스'에서 우주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메뉴를 만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굿즈 브랜드 '노플라스틱데이'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나만의 키링(Key Ring)을 제작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의 구성요소에 숨겨진 '엔트맨' 피규어를 갤럭시 S23 울트라와 스페이스줌 기능으로 찾아보는 '갤럭시 중년 챌린지'를 진행하고, 선착순으로 영화 <엔트맨과 와프:퀀텀메니아> 예매권 또는 오리지널 굿즈를 증정한다.

또한, 졸업과 입학에 맞은 10대들을 위한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 개강 시즌에는 전국 주요 캠퍼스에 '갤럭시 스튜디오 in 캠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는 '뉴스테이트 모바일 갤럭시 BOOOM 챔피언십'을 13일부터

개최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예선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선은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최종 결승은 게임 전용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장 김현중 상무는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차별화된 혁신 기능을 MZ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로컬투어를 하듯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게 기획됐다"며 "일상 속 여행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갤럭시 S23 시리즈의 가치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갤럭시 스튜디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담양 딸기, 울들어 첫 미국 수출길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서 상차식...미국 동부 프리미엄 시장 납품

전라남도 담양군은 15일 담양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번째 담양 딸기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은 담양 딸기를 생산하는 19농가로 구성된 창평새벽이슬영농조합법인(대표 윤일호)과 지역 수출전문기업 영농조합법인광수(대표 김현성),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대표 조성희)이 공동으로 발굴한 미국 내 대형 식품 구매자를 통해 성사됐다.

이날 선적된 담양 딸기(품종 설향)는 미국 수출용 1천kg 중 1차 물량 100kg으로 미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상차식에서 "최근 전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전남산 식품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남 딸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품종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담양 딸기는 맛과 당도가 특히 좋아 국내 유통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돼 수출용 딸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안정적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담양군과 생산 농가, 수출기업 등이 적극 협력해 수출하게 됐다.

딸기는 항공 운송에 따른 비싼 물류비와 낮은 유통 안전성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이지만, 한국산 딸기에 대한 현지 반응이 매우 좋아 수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길에 오른 설향 딸기는 순수 국내 개발 딸기 품종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84.5%를 차지한다. 병충해에 강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 국내외 해외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남 딸기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은 물론 딸기 총중국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딸기 수출액은 28만 달러로 2021년(19만 달러)보다 약 46% 증가했다.

차세대배터리 외투기업, 충주시에 1,956억 대규모 투자



충주내륙신산업도시 충주가 차세대배터리 생산 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2023년에도 우량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15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SES AI KOREA(유)(이하 SES)와 1,956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차차오후 SES 대표, 김한수 SES 한국지사 대표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SES AI KOREA(유)·충북도·충주시와 1억5천만불 규모 투자협약 체결

SES는 차차오후 대표가 2012년 MIT공과대학에서 시작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미국 보스턴에 본사,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메탈 배터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들과 공동연구개발 및 대규모 투자지원을 받고, 2022년 기업가치 약 4조 원을

인정받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받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8,000㎡ 부지에 건축면적 4,958㎡ 규모의 연구 및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5년간 1,956억 원을 투자해 79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차차오후 대표이사는 "투자규모 확충, 지역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구

매,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차전지는 전동화, 친환경화라는 전세계적인 추세속에서 미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충주가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주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재범, 오늘(13일) 새 싱글 'Yesterday' 발매...봄 감성 끌어올릴 '서정적 무드 신곡'

가수 박재범의 신곡이 베일을 벗는다. 박재범은 13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Yesterday(에스터데이)'를 발매한다.

'Yesterday'에는 싱글명과 동명의 곡 'Yesterday'를 비롯해 마마무 화사가 피쳐링에 참여한 'Love Is Ugly(러브 이즈 어글리)'까지 두 곡이 수록된다.

발매 당일인 13일 0시 MORE VISION(모어비전)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Yesterday' 뮤직비디오의 두 번째 티저 영상을 통해 발매 기대감을 더했다. 영상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남다른 연기력으로 호평을 이끈 배우 이우미가 출연해 단순해 몰입도를 높였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로 'Did as yesterday(어제 그랬던 것처럼)'이란 노랫말이 차분하고 세련된 감성을 선사하며 본편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수곡곡 'Love Is Ugly'는 박재범과 화사의 특색 있는 보이스 조합이 인상적인 곡이다. 박재범은 발매를 앞둔 지난 12일 tvN '화사쇼'를 통해 'Love Is Ugly'를 선공개하기도 했다. 둘의 신선한 하모니와 감성 조합이 듣고 보는 이들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발매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박재범은 KBS 2TV 새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MC를 비롯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펼치며 독보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봄, 뽀얀타인데이를 앞두고 아티스트로서 새롭게 선보이는 감미로운 앨범비싱글에 더욱 뜨거운 관심이 모인다.

박재범의 새 싱글 'Yesterday'는 13일 오후 6시부터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래퍼 코알라, 박재범과 또 한 번 손잡았다! 16일 싱글 'Koalified' 발매



래퍼 코알라(KOALA)가 박재범과 또 한 번 손잡았다.

코알라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세 번째 싱글 'Koalified(코알라파이드)'를 발매한다.

'Koalified'는 지난해 6월 발매된 '끄덕여(GOOD 2 GO) (feat. 박재범)' 이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국내 대표 힙합 아티스트 박재범과 바블헤드뮤직(Bobblehead Music)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박재범은 코알라의 전작 '끄덕여'의 프로듀싱은 물론, 피쳐링과 뮤직비디오 출연으로도 지원자격을 펼친 바 있다. 한차례 시너지를 증명했던 두 사람이 이번 신곡을 통해 보여줄 케미스트리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Koalified'는 자신의 이름 KOALA와 자격 있다는 뜻의 qualified를 새롭게 조합해 만들어낸 단어다. 코알라의 이름을 내세워 탄생시킨 워트 있는 곡명인 만큼 어떤 색깔의 음악을 들려줄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코알라는 존존(JohnJohn), 제리리그스(JaeRiggs), 커즈디(CuzD)가 소속된 레이블 바블헤드뮤직의 아티스트로, '팔라(feat. 트루디)', '끄덕여' 등의 싱글을 차례로 발표하며 음악팬들을 사로잡았다.

그간 트루디, 박재범 등 쟁쟁한 뮤지션들과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코알라가 신곡 'Koalified'를 통해서 어떤 아티스트와 호흡을 맞출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코알라의 세 번째 싱글 'Koalified'는 오는 1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킹더랜드' 이준호-임윤아, 달콤한시너지 담긴 투샷 스틸 최초 공개!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만날 이준호, 임윤아가 드라마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특급 뽀얀타인데이 선물

을 보였다. 2023년 첫 방송될 JTBC 새 드라마 '킹더랜드'(극본 최품(팀 하리마오), 연출 임현욱, 제작 엔피오엔터테인먼트, SLL)는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이준호 분)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킨 천사랑(임윤아 분)이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준호(구원 역)와 임윤아(천사랑 역)는 이미 여러 차례 무대 위에서 레전드 컬래버레이션을 탄생시키며 가슴 설레는 특별한 케미스트리와 시너지를 발휘했던 만큼 이번 '킹더랜드'를 통해 로맨스의 진수를 예고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킹더랜드'에서 이들의 달달한 비주얼 합을 엿볼 수 있는 투샷 사진을 최초 공개해 심장박동을 급상승시키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푸릇푸릇한 생기가 맴도는 나무들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입가에 열은 미소를 머금은 구원과 감쪽한 손하트를 한 천사랑의 시원한 웃음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광대까지 치웃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스타일링도 대비를 이루고 있어 흥미를 돋운다. 구원은 어두운 톤의 수트로 재벌 2세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한편, 천사랑은 화사한 의상으로 러블리한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는 것. 이에 화이트초콜릿보다 부드럽고 다크초콜릿만큼 진한 로맨스를 선사할 구원과 천사랑의 이야기가 기대를 모은다.

이렇듯 열에 붙어만 있어도 한 편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구원과 천사랑의 로맨스는 배우 이준호와 임윤아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때문에 최고의 미소와 최상의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VVIP 라운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준호와 임윤아의 연기 합으로 2023년의 가장 달콤한 시간을 선물할 '킹더랜드'의 오픈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황지원/기자



'일타 스캔들' 전도연X정경호, 애뜻한 로맨틱 키스에 설렘 포텐 터졌다! 시청자 반응 폭발

'일타 스캔들'이 전도연과 정경호가 꿈만 같은 로맨틱 키스로 설렘 폭격을 선사.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뜨거운 '일타'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재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10회에서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행선(전도연)과 치열(정경호)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가슴 아픈 이별을 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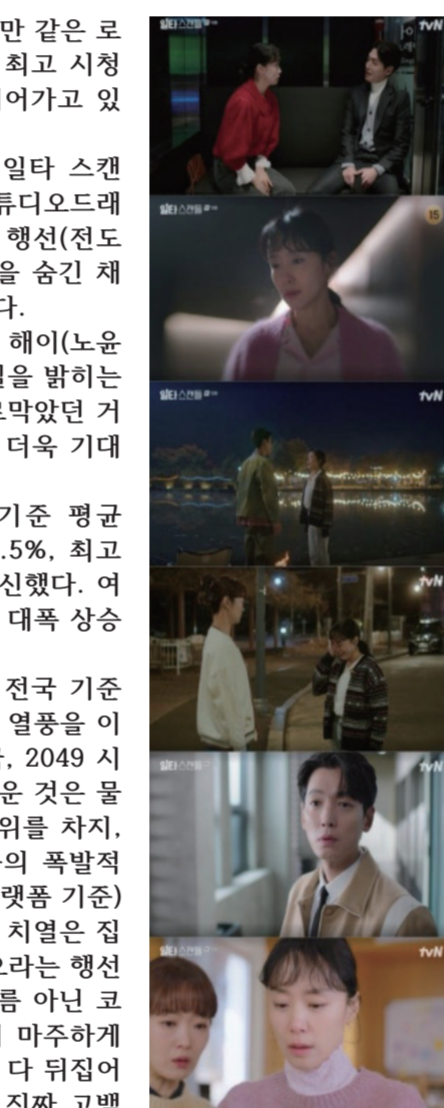
그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헤이(노우서)가 행선이 엄마가 아닌 이모라는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 엔딩을 장식, 둘의 로맨스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벽을 무너트리며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기대케 했다.

이에 지난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16%, 최고 18.1%, 전국 기준 평균 13.5%, 최고 15.3%의 수치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여기에 tvN 타깃인 남녀 2049시청률 또한 대폭 상승했다.

수도권 기준 평균 7.6%, 최고 8.6%, 전국 기준 평균 6.4%, 최고 7.2%를 기록하며 흥행 열풍을 이어간 것. 특히 이날 방송은 수도권, 전국, 2049 시청률까지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 행선과 치열의 로맨스를 향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닐스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

입시 토크 콘서트에서 공개 고백을 한 치열은 집에 도착한 후 '베르사이유 2번 방'으로 오라는 행선의 문자를 받았다. 그가 찾아간 곳은 다음 아닌 코인 노래방. 좋은 방 안에서 가까이 다시 마주하게 된 치열에게 행선은 왜 스캔들까지 혼자 다 뒤집어 쓰느냐며 나무랐지만, 치열은 좋아한다는 진짜 고백에 이어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이 거 같아요"라며 그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치열의 고백에 행선은 혼란스러웠다. 영주(이봉련)는 치열의 마음이 진심이라며 헤이에 대해 얘기하라고 했지만, 행선은 정리하겠다고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치열의 공개 고백 소식은 삼시간에 녹음로에 퍼지면서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 프라이드 학원 원장(허정도)은 치열 몰래 다른 학원의 수학 일타 강사인 송준호(윤석현)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고, 치열은 모든 강의를 중단하고 잠깐의 휴식을 가졌다. 그 와중에 연락이 두절됐던 이상(지일주)은 시체로 발견되고, 다임 메시지로 최구슬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



했다.

모처럼 휴식을 갖게 된 치열은 우연히 만난 친구 종렬(김다현)과 술자리를 가졌다. 오랜만에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친구. 먼저 술에 취한 치열을 집에 배려다주기 위해 종렬은 그의 최근 통화목록에 있던 재우에게 연락했고, 치열이 형을 걱정하고 있던 재우는 그를 부축해 집까지 배려다졌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서 잠이 든 치열은 잠깨고 보고 싶었던 행선이 자기 앞에서 서 있는 걸 보고 "한 번만 나쁜 놈 될게. 꿈이니까"라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의 키스는 극강의 로맨틱 텐션을 선사하기 충분했다.

최만식/기자

'김희정'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출연 확정! 억척스럽지만 정 많고 따뜻한 엄마 '서정혜' 역

배우 김희정이 KBS2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서정혜' 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김희정의 소속사 인연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오) "김희정이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의 출연을 확정하고 시청자들을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첫 방송 되는 KBS2 '비밀의 여자'는 시력을 잃고 '락트-인 후후군' (의식이 있는 전신 마비)에 빠지게 된 여자가 상속녀

와 엮여, 자신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처절한 복수를 통해 사랑과 정의를 찾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희정은 극 중 서대양(이선호 분)의 엄마 '서정혜' 역을 맡았다. 서정혜는 모든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세월만큼 강인하고 억척스러워 보이지만, 속내는 정 많고 눈물도 많은 따뜻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대체 불가 명품 조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희정 역시 배우 이선호와 특별한 묘자(母子)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기대된다. 엄마의 대명사 김희정은 '술꾼도시여자들 2', '오라차차 내 인생'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희정이 '비밀의 남자'에 이어 이번 '비밀의 여자'로 어떤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일지 궁금해진다.

정동희/기자



'바빌론' 데이미언 서젤 감독부터 조던 필 감독까지! 할리우드 천재 감독 계보!

압도적인 스토리와 할리우드 대세 배우들의 눈부신 케미, 황홀한 볼거리로 뜨거운 호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바빌론'이 데이미언 서젤 감독부터 조던 필 감독까지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천재 감독 계보를 공개했다.

장편 데뷔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할리우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영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바빌론'을 연출한 데이미언 서젤 감독부터 조던 필 감독까지 데뷔작부터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으며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할리우드 천재 감독 계보가 화제다.

조던 필 감독은 첫 장편 작품으로 인종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의식을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펼친 '겟 아웃'을 연출해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어스', '놈' 등의 작품에서 선보인 특유의 촘촘한 복선과 독특한 스토리텔링은 조던 필 감독의 장기로 관객들과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특히 조던 필 감독의 최근 작품인 '놈'은 SF 스릴러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다루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체험을 선사한 바 있다.

'바빌론'은 황홀하면서도 위태로운 고대 도시 '바빌론'에 비유되던 할리우드에서 꿈 하나만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강렬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 데이미언 서젤 감독은 29세에 첫 연출작 '위플래쉬'로 극찬을 받으며 데뷔와 동시에 할리우드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뒤이어 발표된 '라라랜드' 역시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으며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주요 상을 거머쥐며 천재 감독으로서 면모를 입증했다.

이후 '퍼스트맨',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데이미언 서젤 감독은 다채로운 영화를 선보이며 한계 없는 연출력으로 믿고 보는 감독으로 올라왔다. 특히 영화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바빌론'은 구상으로부터 세상에 나오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데이미언 서젤 감독의 거대한 야심과 애정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한다.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당시 할리우드에서 분투하던 이들의 흥망성쇠가 있는 '바빌론'의 대서사시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는 데이미언 서젤 감독의 신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바빌론'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황지원/기자



화성시,신·변종 룸카페 선제단속 실시...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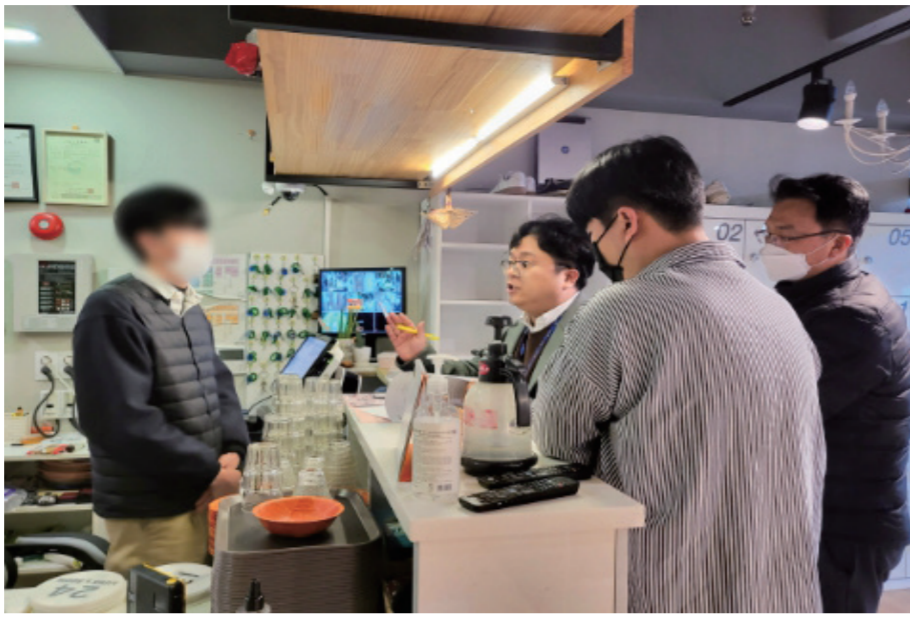
화성시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8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해당업소가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하고 향후 관련 사항 미 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화성시는 향후에도 관내 경찰서, 화



성민간기동대 및 읍면동과 연계해 룸카페를 추가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청소년 출입 관련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의 미래

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법규 위반하는 암행 운전 차량 뿌리 뽑는다!'...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 암행순찰차 3대→5대로 증차하고 3월부터 현장 투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5대(현재 3대)로 증차하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를 담은 '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서울경찰청에 시달렸다.

암행순찰차는 2022년부터 마포, 강서 등의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다. 외관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며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사각지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2022년부터 차량 구매와 운영예산(약 1.2억원)을 확보해 전기 승용차 2대를 구입하는 등 암행순찰차 확대·운영을 준비해왔다.

증차하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 경찰서(31곳)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하여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한 암행순찰차(2대)는 서울경찰청에 인도되어 전문 업체를 통해 단속 장비 장착 등 차량 개조 후에 다음 달인 3월에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1개월마다 교통사고를 분석



하여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하여,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으로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2022년 마포경찰서, 강서경찰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1개월씩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사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함안군, 영농기 전 산연접지 논·밭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함안군은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른 산연접지에 위치한 논·밭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일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본격적인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밭 정리를 위한 농업 부산물 소각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이다.

집중단속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화기를 이용한 불피우기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 하여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일제단속과 병행해 읍면에서는 마

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 논밭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덕수/기자

대구시,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먼지 특별단속

2023.2.15.부터 4.28.까지 드론 활용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단속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의심 사업장과 구·군의 다수 민원 발생 및 상습 위반 사업장 등으로 별도 분류해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 공정작업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수송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오염원 유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다만,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 비산먼지 조치 미흡 등의 경미한 사항 등은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까지 정밀하고 입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위반 현장 적발 시 신속하게 인력을 현장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집중점검 실시

안성시는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2023년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

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야적 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품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가축분 퇴·액비 살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

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안동시
CHANGE & INNOVATION
2023 안동시 승격 60주년

위대한 시민·새로운 안동

봉산개도 우수가교 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난관이 있어도 굳은 의지로 극복하겠습니다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덕암칼럼] 심상찮은 물가 도미노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인상이 아니라 은행금리도 오르고 과거, 아이스크림, 음료수, 유제품, 밀가루 재료, 주류, 택시, 지하철, 버스, 전기·가스 기타 공공요금, 택배비, 보험료, 국민연금도 오르고 올랐다.

물가가 높다하되 하늘아래 세상이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지만 사람이 조절하지 못 하고 돈 만 없다 하더라. 당연히 월급이 올라도 소용없다. 오늘은 물가 상승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8% 동결발표 이후 일반 은행의 예금적금 금리는 사실상 제로였다.

돈은 갖고 있어 봤자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니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이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니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영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경제학점 관점에서 볼 때 화폐의 가치하락은 물가상승률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 원인은 현금의 통화량 증가 및 수요와 공급의 법칙 붕괴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돈의 가치하락은 전문용어로 화폐창작 또는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데 돈 보다는 부동산이 더 낫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쪽쪽 올라가던 상승곡선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현금이나 다름없던 아파트마저 반토막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색하지 않다. 서울이 이렇진대 지방이나 일명 소멸지역은 어떨까.

물어보나 마나다. 건설업계의 도미노가 물가 상승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불황을 향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이 연이 연이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을 인용하자면 추운 겨울날 임금이나 군사들이 탈 군마들이 배를 훔쳐 쓰러지자 성첩을 지키던 군사들의 몸을 감싸고 있던 가마니까지 모두 거두어 말들의 먹이로 사용했다.

그나마 남은 가마니도 떨어져 굶어 죽자 죽은 말고기를 군사들에게 먹였다. 고기를 먹던 군사들이 상전에게 던진 말이 걸작이다. "저희들의 가마니를 거두어 말을 먹이시고 그 말로 저희를 먹이시니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말라죽기 전에 토실토실 할 때 먹여 주시면 더 고맙겠어요."이라는 대사다.

평상시 온전하던 사람도 급해지면 이성을 잃는다. 다시 말해 식당의 밥값이 7,000원 하다가 물가가 오르면 너도나도 덩달아 오른다.

8,000원 받아도 될 가격을 9,000원이나 1만원으로 오른다. 당연히 1만원에 밥을 사먹은 미용실 주인이 파마나 염색 값을 3만원에서 3만 5천원이 아니라 4만원이나 5만원을 올리게 되고 미용실을 다녀온 옷집 주인은 6만원에 팔아도 될 원피스를 7만원 받을 수밖에 없다.

옷을 비싸게 사느냐 없는 돈에 안 사고 버티느냐는 일반 서민들의 결정이다. 그런 이유를 지갑을 열지 않으면 내수경제가 추락할 것이고, 이는 곧 현금 유동성을 줄이니 그 파급효과는 악순환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식자재를 매일 구입해야 하는데 식자재의 신선도는 물론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율을 적용받으니 원가가 낮아지지만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오래된 재료를 버리기 아까워 다시 쓸 수밖에 없으니 음식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식자재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며 그마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도미노 현상은 정부가 제 아무리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서민층 살린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물가 쓰나미로 이어지게 된다. 날짜도 어기지 않고 제때 월급받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를 알리가 있을까. 있다해도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한번 더 연임하기 급급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마치 문어가 제 다리 잘라먹으며 당장은 배부르니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더한다면 나락 씨 까먹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듬해 농사를 지을 벌씨로 밥을 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귀산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도 있다.

흉년이 들어 먹을것이 워낙 없다보니 귀신도 배가 고파 창고와 부역을 뒤지는데 한쪽 구석에 보관해 둔 이듬해 벌씨용 나락을 발견하고 조용히 아자작 거리며 씹어 먹는 소리를 뜻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경우를 빗대어 사용하는 비속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따로 있듯 돈이 없으면 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빚을 내면 빚이 빚을 낳고 결국에는 수습

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다.

이미 온갖 복지수당으로 길들여진 국민들은 점차 게을러지고 게으른 습관은 노동을 어렵게 하고 빚을 내서라도 쓰던 습관은 고칠 수 없다.

따라서 대출과 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캐피탈까지 손을 내밀다 변제 기간이 도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은행 문턱은 턱없이 높아지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환경에 허덕거리는데 정치권은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반대로 여당은 난방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에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양쪽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물라가 올랐고 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시장경제 논리의 당연한 인상을 포퓰리즘으로 연기했다가 이제 와서 모두 폭탄 맞은 것이라 치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집안에 불이나 모두 타고 있는데 누가 불을 냈는지가 그리 중요한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지금이라도 일손이 부족한 현상으로 놓고 버팀에 습관된 국민들을 내보내야 한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난한 불법체류자로 동정이나 무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윤택함을 누리고 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이불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국인들 대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과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외국인들이 일선 현장 곳곳에서 기술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안방의 이불을 걷어 제치고 게을러진 국민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이유인즉 여기서 더 게을러지면 그때는 갑이 되어버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 사회에서 한국인은 상전이 아니라 일을 시켜도 잘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게 아니라 박힌 돌 스스로가 빠져나온 것이니 누가 누구 탓하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나가면 일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다.

박근중 칼럼

‘유리지갑’에 ‘소리없는 증세’로 직장인만 붕,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정부의 전체 세금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국세 수입’이 49.2% 증가한 최근 5년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68.8%나 증가했다.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탓에 가뜩이나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소득이 훨씬 공개돼 ‘유리 지갑’으로 불리며 예누리 없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급쟁이인 직장인의 입장은 자기 세금만 한 치도 어긋없이 걷어가는 정부가 야속하다 못해 원성이 잦아지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공개된 기획재정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근로소득세로 57조 4,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1년 사이 21.6%인 10조 2,000억 원이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 34조 원과 비교해 보면 68.8%인 23조 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2017년 34조 원이던 근로소득 세수는 2018년 38조 원, 2019년 38조 5,000억 원, 2020년 40조 9,000억 원, 2021년 47조 2,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4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50조 원대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총국세와 자연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49.2%와 49.4% 늘어난 반면 유독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만 다른 세수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와 자연업자보다 단기간에 무려 20%포인트나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이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 「대한민국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평 과세를 전제로 할 때의 법리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물가 급등기에 더욱 커진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그 자체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라고도 한다.

이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탓에 매출을 숨길 수 있는 자연업자나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 7,088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연간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더 줄었을 가능

성이 크다. 게다가 직장인이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소리 없는 증세’만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올해부터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월급의 7.09%를 내야만 한다.

월평균 2,069원으로 연간 총 2만 4,828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1,598원이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도 크게 늘린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민중이 부유층보다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역진세(逆進稅 | Degressive tax)’에 해당하는다.

고물가 영향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기는 커녕 빈부 격차만 키우고 조세의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 소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보다 무려 1조 8,000억 원이나 줄여주었다.

얼전 데 걸친 격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폭탄이 직장인들의 불만을 키우는 결정타가 될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393만 4,600명이었다.

이는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체 근로자 1,995만 9,000명의 19.7%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 세액 납부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세액공제가 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추가 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도 꾸준히 늘어 1인당 평균 97만 5,000원에 이른다.

연말정산 환급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근로자 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된 셈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라고 하거나 ‘월급쟁이가 붕’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다.

월급쟁이들은 뭉뚱뚱 빠져나가는 세금을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근원(根源)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름이 한

가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꺾이는 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3%대에 이를 것으로 먹구름만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 자체를 탓할 순 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에 맞춘 합리적 상승이여야 불만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라는 말은 결단코 아니다. 수입이 유리알처럼 뻥뻥한 직장인들에게 무거운 세금 짐을 지우는 것은 마른 수건에 ‘더 쥐어짜자’ 식 ‘밖’에 안 된다.

정책적 성과가 모호한 공제제도들의 재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과 불법·편법을 동원한 탈세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도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는 결단코 공정하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말 정부와 정치권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세율이 고정되는 바람에 일부 납세자로만 수혜자가 제한되면서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늘어났다.

더구나 개편안이 반영돼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더 늘어 60조 원까지 상회하리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職務遺棄)이자 책임방기(責任放棄)가 아닐 수 없다.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낡은 과표는 전면 손질해야만 한다.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조세원칙에 맞게 과표 개혁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자연업자나 불로 소득자의 소득은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분명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할 일이자 책무다. 직장인과 자연업자 간 과세 불공평은 조세 양극화를 키우고 세제와 세정에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가 재정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평성이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다.

박근중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공공인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 소방준장,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소파관악성북소방서장)



의성군

의성의 새로운 100년,
공항도시 기반 구축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